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6년 5월 29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6 국외 항만 주요 동향
 29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인천항, AI 전환 중장기 전략 수립 본격 착수
- 여수·광양항, 중동發 원료 수급난 대응 위해 낙포부두 접안제한 완화
- 울산항, 암모니아 연료 상선 급유 세계 최초 성공

국외 항만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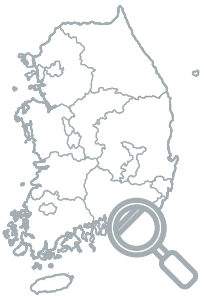
- 파나마 운하,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원유 물동량 전년 대비 70% 급증
- 인도 나바세바·문드라항, 중동發 우회 화물로 항만 혼잡 심화
- 한중항로 운임 2년 내 최고치 근접, 물동량 3개월 연속 증가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KDI,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 기존 1.9%에서 2.5%로 상향
- ICT 수출, 반도체 호황 영향으로 역대 최대 증가율 기록
-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 글로벌 석유 공급망 불안 확대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1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 국내 최초 도입¹⁾

- 부산항만공사(BPA, Busan Port Authority)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국산 무탄소 전기 야드트랙터를 국내 최초로 부산항에 도입함**
 - 이번 전기 야드트랙터는 2025년 7월부터 약 2개월간 부산항을 테스트베드로 운행한 뒤 부산항 부두 운영사 2곳에 각각 1대씩 총 2대가 투입됨
 -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는 각 부두의 특성을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작됐으며, 부품의 약 90% 이상을 국산 부품으로 제작함
 - 해당 장비는 운전실 최적화,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지능형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탑재해 운전자 편의성과 장비 활용 효율성 향상이 기대됨
-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야드트랙터를 국산 무탄소 전동 장비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해당 사업은 국내 하역장비 제조업체의 판로 확보와 부두 운영사의 무탄소 장비 도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추진됨
 - 지원 규모는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 도입 비용의 50%(국비 25%와 항만공사 25%)이며, 예산 24억 7,5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함
 -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는 2026년 6월 중 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임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4.17.),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5&dataSid=36169\(2026.05.25. 검색\)](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5&dataSid=36169(2026.05.25. 검색))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



자료: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4.17.),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4&dataSid=36169(2026.05.25.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컨테이너크레인 유지보수공사 착공²⁾

 BPA는 컨테이너크레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 71억 원을 투입해 유지보수공사를 착공함

- 이번 유지보수공사는 부산항 신감만부두 컨테이너크레인 장비 5기를 대상으로 8개월간 추진되며, 기계시설 유지보수공사, 전기시설 유지보수공사, 수시 검사용역,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으로 구성됨
- 부산항만공사는 컨테이너크레인을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 기능의 핵심 장비로 보고 유지보수공사를 통해 안전한 부산항을 조성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5.06.),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3&dataSid=36242\(2026.05.25. 검색\)](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3&dataSid=36242(2026.05.25. 검색))

3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인프라 구축계획 논의³⁾

- BPA는 부산항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벙커링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는 2026년 5월 1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Busan Port International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됨
 - 부산항만공사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국제 해운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선사들의 친환경 선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함
 - 부산항만공사는 관련 산업계, 연구계, 지자체 전문가들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 조성 전략과 급유 기반 시설 구축방안을 논의함
- BPA는 2032년까지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에 LNG와 그린메탄올 저장탱크 및 접안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함
 - 사업 대상지는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내 약 12만 3천㎡ 부지임
 - 주요 시설은 37만㎥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저장탱크, 15만㎥ 규모의 그린메탄올 저장탱크, 선박연료 운반·공급선 접안시설임
 - 부산항만공사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전문가 제언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자체 예비타당성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5.12.), [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2&dataSid=36279\(2026.05.25. 검색\)](https://www.busanpa.com/board/view.bpa?boardId=BBS_0000031&menuCd=DOM_000000105002001000&paging=ok&startPage=2&dataSid=36279(2026.05.25. 검색))

2) 인천항



1 AI 전환 중장기 전략 수립 본격 착수⁴⁾

- 인천항만공사(IPA, Incheon Port Authority)는 인천항 전반의 인공지능(AI) 기반 혁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IPA AI 전환 중장기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하며 항만 업무 혁신 및 안전 강화에 나섬**

 - 공사는 지난 5월 14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응해 인천항 특성에 맞는 AI 전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임
 - 이번 용역을 통해 AI 활용 가능 분야 발굴, AI 기반 업무 혁신 과제 도출, 중장기 AI 전환 로드맵 수립, 조직문화 확산 방안 마련, 시범과제 수행 등을 추진할 예정임
- 공사는 AX(AI 전환)의 출발점 확보를 위해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공동 설계 체계를 구축할 방침임**

 - 공사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 항만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 설계 체계를 통해 AI 전환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임
 - 이를 통해 공사 내부 업무 혁신뿐만 아니라 인천항 전반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같은 날 「AI 전환 TF」 회의를 병행 개최하여 부서별 실행과제 발굴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을 구체화함**

 - 「IPA AI 전환 TF」는 공사의 AI 기반 혁신 과제 발굴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협의체로, 의사결정 체계 고도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지속 논의 중임
 - 공사는 AI 기술을 항만 운영의 효율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인천항에 적합한 AI 혁신 모델 마련 및 스마트항만 구현에 나설 방침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5.17.),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32267&boardKey=217&menuKey=3996¤tPageNo=1>(2026.05.27. 검색)

2 「국민소통 오픈랩(Open Lab)」 운영으로 참여형 소통 플랫폼 구축⁵⁾

-  IPA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하는 현장 중심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항만공사 국민소통 오픈랩(Open Lab)」을 운영한다고 밝힘
 - ‘오픈랩(Open Lab)’은 ‘열린(Open)’과 ‘실험실(Laboratory)’의 합성어로, 정책과 현장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제안해 해결방안을 만들어가는 참여형 운영 방식임
 - 단순 견학이나 설명회 수준을 넘어 국민이 직접 현장을 경험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는 ‘현장 기반 참여형 소통’이라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됨
-  공사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홍보 방향을 발굴하고 국민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임
 - 인천항은 물류, 여객, 관광, 지역사회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 공간인 만큼 다양한 국민 의견을 반영한 소통이 중요함
 - 학계, 관광, 항만, 지역사회, 홍보 분야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 인천항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정책 아이디어와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임
-  이번 오픈랩은 우선 소규모 시범운영 형태로 추진되며, 공사는 향후 확대 운영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임
 - 제1차 「국민소통 오픈랩」은 오는 5월 중 인천항 갑문지구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공사는 참여자 의견과 운영성가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참여형 소통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공사는 국민소통 오픈랩을 통해 국민이 정책 수요자를 넘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참여형 소통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5)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6.05.18.),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32271&boardKey=217&menuKey=3996¤tPageNo=1>(2026.05.27. 검색)

3) 여수·광양항



1 여수광양항만공사, 중동發 비료 원료 수급난 대응 위해 낙포부두 접안제한 한시 완화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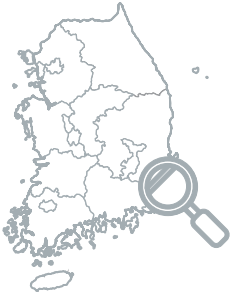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Yeosu Gwangyang Port Authority)는 중동 분쟁에 따른 요소(urea) 수급 차질에 대응해 광양항 낙포부두의 접안능력(DWT) 초과 선박에 한시적 접안을 허용함
 - 중동 분쟁 여파로 카타르 등 주요 요소 수출국의 공급망이 막히면서, 국내 비료 시장점유율 1위 남해화학사는 오만, 동남아 등 대체 수입선을 통해 긴급 원료 확보에 나섬
 -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요소 비료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원료 수급 차질이 생산·공급 차질로 직결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
 - YGPA는 지난달 운영부사장 주관으로 광양항 이용 여수산단 화주사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원료 수급 동향 및 항만 운영 지원 방안을 논의함
 - 오만산 요소를 적재한 ‘SIDRA호’(5만 6천 톤급)가 부두 접안능력을 초과해 접안이 어렵다는 현장 애로가 접수되자, YGPA는 안전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한시적 접안을 허용함
 - 해당 선박은 2026년 5월 13일 낙포부두에 접안해 3만 3천여 톤 가운데 1만 8천 톤의 요소를 긴급 하역함
 - YGPA는 중동 사태에 따른 수급 차질이 지속될 경우 부두 운영 기준의 추가 탄력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6) 헤럴드경제(2026.05.13.),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37087\(2026.05.25. 검색\)](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37087(2026.05.25. 검색))

4) 울산항



① 암모니아 연료 공급 세계 최초 성공⁷⁾

- 
울산항만공사(UPA, Ulsan Port Authority)는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상선에 청정 암모니아 급유를 성공적으로 완료함
- 이번 급유는 울산본항 2부두에서 항만-선박 간 연료공급(PTS, Port-to-Ship) 방식으로 진행됨
-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실증사업자인 롯데정밀화학은 지하 배관을 통해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4만 5천CBM급 가스운반선 안트베르펜(ANTWERPEN)호에 약 600톤의 청정 암모니아를 공급함
- 울산항은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메탄올에 이어 암모니아까지 공급에 성공하며 차세대 친환경 선박연료를 모두 공급한 세계 최초 항만이 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② 친환경 선박연료 급유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⁸⁾

- 
UPA는 친환경 선박연료 급유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 항만 운영을 위해 울산세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이번 협약은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선박연료 급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됨
- 울산항만공사는 선박 입·출항 및 급유 예정 일정 등 주요 항만 운영 데이터를 제공하고, 울산세관은 연료 반·출입 및 통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
- 양 기관은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공급 분석, 관세행정 효율화, 디지털 기술 기반 급유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7) 울산항만공사(2026.04.23.),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dx=671&mid=0501010000&idx=16305>(2026.05.25. 검색)

8) 울산항만공사(2026.05.06.),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dx=671&mid=0501010000&idx=16310>(2026.05.25.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신국제여객터미널, 완공 후에도 정상 운영 차질 지속⁹⁾

-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됐음에도 한·중 카페리 승객이 신터미널을 이용하지 못하고 컨테이너부두에서 승·하선하는 임시 운영이 지속되고 있음

 - 신국제여객터미널은 2024년 12월 개장했으나, 2026년 5월 현재까지 정상 운영에 이르지 못함
 - 한·중 카페리 승객은 컨테이너부두에서 승·하선한 뒤 셔틀버스를 이용해 1.7km 떨어진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동하여 출·입국 수속을 받고 있음
 - 화물차, 컨테이너 장비가 운행되는 부두에서 일반 여객이 통제구역과 일반구역을 넘나드는 동선이 형성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됨
 - 평택직할세관은 신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을 연결하는 1.7km 구간을 보세구역 하역통로로 별도 지정·공고했으나, 정상 활용 시점은 아직 제시되지 않음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9) 경기일보(2026.05.12.), <https://v.daum.net/v/20260512044625202>(2026.05.24. 검색)

6) 동해·묵호항



① 동해시, 환동해권 산업물류 거점도시 도약 전략 본격 추진¹⁰⁾

- 강원 동해시는 동해항과 배후 물류지, 동해선 KTX 고속화 사업을 연계한 환동해권 산업물류 거점도시 도약 전략을 본격화한다고 밝힘
 - 철도 부문에서는 강릉~삼척 동해선 KTX 고속화 사업이 이동시간 단축, 물류 이송 효율 향상, 역세권 기능 재편을 동시에 이끌 것으로 기대되며, 철도와 항만이 결합한 산업물류 거점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구체화함
 - 항만 부문에서도 동해권 항만의 성장세가 확인되면서 동해항이 에너지·원자재 수송을 넘어 환동해권 복합물류 거점항으로 기능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동해신항 개발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등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음
 - 동해신항 개발에는 올해 1,390억 원이 투입되며, 송정·나안동 일원 육상항만 구역 88만㎡와 배후 물류단지 33만㎡ 등 총 121만㎡ 규모를 대상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함
 - 배후 물류단지 33만㎡에는 총 1,551억 원이 투입되며, 철도와 항만을 연계한 복합 물류 기능 집적을 목표로 함
- 강원특별법 4차 개정 추진을 통해 동해항과 배후지를 고부가가치 산업물류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임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반영된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도화하기 위해 강원특별법 4차 개정을 추진 중임
 - 동해시는 항만 경쟁력 강화, 배후 물류지 조성, KTX 고속화에 따른 철도 접근성 개선이 맞물려 해상·철도 물류를 함께 갖춘 복합 산업물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와 물류 기능 확대 성과로 이어지게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0) 연합뉴스(2026.04.30.), <https://www.yna.co.kr/view/AKR20260430084200062>(2026.05.27. 검색)

7) 목포항



1 목포해수청, 2026년 상반기 항만안전문화 캠페인 및 합동 항만안전 점검 실시¹¹⁾

- 목포지방해양수산청(목포해수청)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항만운송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목포항에서 2026년 상반기 항만안전문화 캠페인 및 합동 항만안전 점검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하역사·항만운송 관련 업체, 전남 서부항운노동조합, 목포항만물류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임
 - 캠페인에서는 하역현장 합동 안전점검, 항만출입자·차량 운전자 대상 안전수칙 준수 유인물 배포, 청렴실천 다짐 결의 등이 진행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1) 목포지방해양수산청(2026.05.26.),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132119>(2026.05.26. 검색)

8) 대산항



① 대산해수청, 안전관리 및 항만질서 확립 활동 추진¹²⁾¹³⁾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해수청)은 2026년 상반기 항만안전문화주간을 맞아 항만안전 캠페인과 합동 화재·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함**
 - 항만안전문화주간은 2026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됐으며, 항만 내 안전 문화 확산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됨
 -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항만물류협회, 한국항만연수원, 항만안전 협의체, 소방서, 항만운영사, 하역사, 항운노동조합 등이 참여함
 - 항만안전캠페인은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생활화, 중대재해 예방, 항만 내 차량·장비 안전운행, 화재 예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됨
- 대산해수청은 대산항 내 불법행위 근절과 항만질서 확립을 위해 2026년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함**
 - 특별지도·단속은 2026년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대산항 수상구역 및 수상구역 밖 수역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됨
 - 주요 단속 대상은 항만 내 불법 어로행위, 무단 어망 설치, 항로·묘박지 내 장애물 투기·방치, 무허가 선박 출입, 불법 정박, 항만시설 훼손 행위 등임
 - 대산해수청은 계도 중심의 지도 활동을 병행하되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2) 대산지방해양수산청(2026.05.08.),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31791>(2026.05.25. 검색)

13) 대산지방해양수산청(2026.05.15.),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31915>(2026.05.25. 검색)

9) 군산항



1 중대재해 제로(ZERO)를 위한 군산항 항만안전 강화 본격 추진¹⁴⁾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군산해수청)은 군산항 항만안전 문화주간(5월 11일~15일)을 계기로 산업안전 감독 강화, AI·스마트 장비 도입, 현장 중심 안전관리 등을 통해 항만안전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

 - 군산해수청은 지난 5월 12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군산항 항만안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항만물류협회, 군산항 하역회사 임직원 등 80여 명과 함께 항만안전 추진 방향을 공유함
 - 이번 세미나는 군산항 개항 이래 기업체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시행한 첫 사례로, ‘작업 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를 주제로 진행됨
-  정부는 현장 밀착형 산업안전감독과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고위험 작업군 테마 감독 방향을 제시함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2026년 항만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감독 방향’을 통해 현장 밀착형 산업안전감독 강화와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항만 고위험 작업군 테마 감독을 추진할 방침임
 - 이를 통해 항만 하역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방침임
-  AI 및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항만 하역현장에 접목해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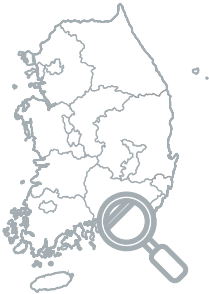
 - 항만안전연구소는 ‘항만 하역현장 AI 도입방안’을 통해 국내외 항만 하역현장의 자율주행 차량 및 AI 기반 감시제어 시스템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군산항 적용 방안을 제시함
 - 항만안전점검관은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항만 하역현장에서 중대재해 제로(ZERO)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체와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당부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4) 한국해운신문(2026.05.13.), [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207\(2026.05.27. 검색\)](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207(2026.05.27. 검색))

10) 마산항



1 마산해수청, 여름철 우기 대비 항만·어항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실시¹⁵⁾

-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해수청)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관할 항만·어항 시설물 및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2026년 5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함
 - 점검 대상은 마산항 제2부두 등 항만시설물 37개소, 미조항 방파제 등 어항시설물 184개소, 마산항 제5부두 및 포철부두 배후부지 성능개선 시설공사 등 건설현장 7개소이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점검을 수행할 예정임
 - 항만·어항 시설물은 균열·파손 상태를 점검하고, 건설현장은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및 수방자재·물자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은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신속히 조치할 예정임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5) 마산지방해양수산청(2026.05.21.), <https://masan.mof.go.kr/ko/board.do?menuidx=2311&bbsidx=132044>(2026.05.26.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한중항로 운임 상승 및 물동량 증가세 지속¹⁶⁾

- ◆ 한중항로 선사들은 유가 상승 대응을 위해 저유황할증료(LSS, Low Sulfur Surcharge)를 인상하며 운임 회복에 나섬
 - 범주해운은 2026년 4월부터 중국발 한국행 수입화물에 대해 TEU당 100~200달러 수준의 저유황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팬오션은 북중국발 한국행 화물의 저유황할증료를 TEU당 140달러로 인상 조정함
 - 일부 선사들은 기존 기본운임인상(GRI, General Rate Increase) 대신 저유황할증료를 기본운임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연료비 부담을 반영하고 있음
 - 업계는 긴급유류할증료(EBS, Emergency Bunker Surcharge) 도입 확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
- ◆ 한중항로 운임은 최근 2년 내 최고 수준까지 상승함
 - 2026년 4월 셋째 주 평균 상하이발 부산행 수입운임은 TEU당 167달러로 전월 대비 9%, 전쟁 이전인 2026년 2월 대비 20% 상승했으며, 2024년 8월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160달러를 상회함
 - 부산발 중국행 수출항로 운임은 2026년 3월 평균 FEU당 58달러로 전월 대비 9% 상승함
 - 2026년 4월 둘째 주 부산발 중국행 주간 운임은 FEU당 59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2년 내 최고 수준에 근접함
- ◆ 한중항로 물동량은 수출·수입화물 증가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함
 - 2026년 3월 한중항로 컨테이너 물동량은 31만 2,200TEU로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함
 - 수출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한 10만 6,300TEU를 기록하는 등 반등세를 나타냈으며, 수입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한 19만 5,700TEU를 기록하여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원양선사 대상 피더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한 1만 100TEU를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이 지속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6) 코리아쉬핑가제트(2026.04.29.),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7074\(2026.05.25. 검색\)](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7074(2026.05.25. 검색))

2 칭다오항, 국제 컨테이너 항로 확대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강화¹⁷⁾

- ◆ 칭다오항은 2026년 1분기 동남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을 연결하는 국제 컨테이너선 신규 항로 7개를 개설하며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함
 - 신규 항로 개설을 통해 동남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 수출입기업의 선박 부족 완화와 물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아프리카 항로는 중국과 이집트·리비아를 연결하는 직항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남미 항로는 중국 기업의 남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임
 - 동남아 항로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개설됨
 - 현재 칭다오항의 국제 컨테이너 항로는 총 240개이며, 전 세계 180여 개 국가와 700여 개 항만을 연결하고 있음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7) 코리아워핑가제트(2026.05.04.),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7129(2026.05.25. 검색)

2) 아시아

싱가포르 해사항만청·선주협회, 해운 부문 AI 도입 가속화 위한 MOU 체결¹⁸⁾

1

-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과 싱가포르선주협회(SSA, Singapore Shipping Association)는 자국 해사 부문 전반의 인공지능(AI) 도입 가속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번 협력은 선박 대리점, 선박관리·용선, 해운 운영, 병커링 등 해운업 핵심 기능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참여 기업은 해사 AI 활용 사례 지식 베이스 접근, 솔루션 제공업체 연계, 실제 운영 환경 내 시범 적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의 AI 성숙도 진단 도구 제공과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 참여 기업은 AI Singapore의 AI 준비도 지수(AIRI, AI Readiness Index)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자사 AI 성숙도를 진단하고 향후 도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MPA와 SSA는 고등교육기관 및 산업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해 진화하는 직무와 디지털 업무환경에 부합하는 AI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현재 21개 기업이 초기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대규모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임
 - 2026년 하반기에는 ‘Maritime AI Forum’을 개최해 실제 AI 활용 사례와 해사 운영 전반의 실질적 도입 기회를 공유할 예정임
 - MPA는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선박 성능 개선, 항만 운영 최적화, 의사결정 강화 등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AI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8) Port Technology(2026.04.27.), <https://www.porttechnology.org/mpa-ssa-accelerate-ai-rollout-across-shipping-sector/>(2026.05.27. 검색)

2 APM터미널 재팬, 요코하마항 탈탄소화 위해 20년 장기 재생에너지 PPA 체결¹⁹⁾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Maersk) 자회사 APM터미널 재팬은 일본 FPS社와 요코하마항 운영을 위한 장기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함

- 이번 계약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전력을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약 2.6kt CO₂eq 규모의 Scope 2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PPA는 머스크의 203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 및 2040년 전 가치사슬 탄소중립 달성 목표 이행을 위한 핵심 조치임

20년 장기 물리적 PPA를 통해 요코하마항 운영에 안정적이고 직접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이 이뤄짐

- 재생에너지 공급은 2026년 4월 1일부터 개시됐으며, 도쿄 권역에 신규 개발된 총 설비용량 5.5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전력을 공급받음
- 설비용량은 실시간 매칭 및 물리적 공급 요건을 충족하면서 태양광 활용도를 극대화하도록 최적화됐으며, 잔여 수요는 시장 기반 전력으로 보완함

물리적 PPA 방식 채택을 통해 일본 국가 전력망에 신규 재생에너지 용량을 추가하며 일본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함

- 장기 물리적 PPA는 안정적 전력 공급뿐 아니라 전력 가격 변동성 위험 완화에도 효과가 있어 최근 에너지시장 불안정 상황에서 초기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APM터미널 재팬은 이번 PPA가 요코하마항 터미널의 100% 재생에너지 운영을 위한 핵심 디딤돌이자, 신규 태양광 설비를 국가 전력망에 추가해 일본 에너지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조치라고 평가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9) APM Terminals 보도자료(2026.05.08.), <https://www.apmterminals.com/en/news/news-releases/2026/260508-APMTerminals-Japan-signs-agreement-to-decarbonise-operations-yokohama>(2026.05.26. 검색)

3 인도 나바세바·문드라항, 운전기사 부족 및 중동궤 우회 화물로 항만 혼잡 심화²⁰⁾

-  **인도 주요 항만인 나바세바항(Nhava Sheva)과 문드라항(Mundra)이 트럭 운전기사 부족과 중동궤 우회 화물 증가로 운영 차질이 지속되고 있음**
 - 트럭 운전기사 부족으로 환적 관련 터미널 간 화물 이송이 지연되며, 내륙 운송 병목 현상도 가중됨
 - 정기 운항 선박의 접안 지연은 평균 약 2일, 비정기 선박의 경우 최대 5일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문드라항 일부 터미널은 혼잡 관리를 위해 비정기 입항 선박 수용을 거부함
 - 2026년 5월 19일 기준, 양 항만의 7일 평균 선박 대기시간은 약 2.5일 수준이며, 컨테이너 야드 혼잡으로 일부 터미널은 게이트를 일시 폐쇄함
-  **선사들은 야드 적체와 운영 혼란에 대응해 터미널 변경 등 긴급 조치를 취함**
 -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Maersk)는 야드 공간 부족과 컨테이너 적체로 향후 운항편의 입항지를 기존 터미널에서 나바세바항 PSA 뭄바이(PSA Mumbai) 터미널로 변경한다고 발표함
 - 인도 항만운행사 아다니 로지스틱스(Adani Logistics)는 운전기사 부족과 항만 차질로 컨테이너 first-mile 및 last-mile 운송에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힘
-  **호르무즈해협 폐쇄에 따른 중동궤 우회 화물 증가가 인도 항만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페르시아만 항만 접근이 제한되면서 다수 선사가 인도 환적시설을 대체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어, 야드 밀도 증가·체화시간 연장·선사 운항 일정 불안정화 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 파키스탄 카라치항(Karachi)도 중동궤 우회 화물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한된 터미널 용량으로 인해 처리 압박을 받는 상황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0) Kuehne Nagel(2026.05.20.), [https://mykn.kuehne-nagel.com/news/article/indian-ports-face-mounting-strain\(2026.05.27. 검색\)](https://mykn.kuehne-nagel.com/news/article/indian-ports-face-mounting-strain(2026.05.27. 검색))

4 미군, 이란 반다르아바스·케숨항 공습으로 호르무즈해협 긴장 재고조²¹⁾

-  미군이 지난 5월 7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아바스항(Bandar Abbas)과 케숨항(Kesum)을 공습한 것으로 보도되며, 호르무즈해협 일대 항만 운영에 추가 차질이 우려됨
 - 로이터통신은 폭스뉴스 기자가 X(구 트위터)에 게재한 미국 고위관리 발언을 인용해 미군의 공습 사실을 보도함
 - 이란 준국영 메르통신은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 및 호르무즈해협 인근 케숨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감지됐다고 보도하였으며, 반다르아바스 상공에서 무인기(UAV) 2기가 격추되었다는 보도도 나옴
-  이란 국영방송은 미군 공습 사실과 자국 미사일 대응 작전을 발표하며 양국 간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란 국영 IRIB는 미군이 자국 유조선을 공격했으며,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적군이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고 발표함
 - 공습 직전까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담은 단일면 양해각서(MOU) 서명에 근접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번 충돌로 협상 흐름에 변수가 발생함
-  호르무즈해협 긴장 재고조에 따라 글로벌 해상 물류 및 인근 항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이란과의 조속한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미군 공습 및 무인기 격추 보도 이후 양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
 - 호르무즈해협은 글로벌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로, 이번 충돌이 지속될 경우 인근 항만의 선박 운항 및 화물 처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1) Maeil Business(2026.05.08.), [https://www.mk.co.kr/en/world/12040680\(2026.05.27. 검색\)](https://www.mk.co.kr/en/world/12040680(2026.05.27. 검색))

3) 미주



① 북미항로 운임, 긴급유류할증료 반영으로 상승세 지속²²⁾

-  북미항로 운임은 중동발 유가 상승과 긴급유류할증료(EFS, Emergency Fuel Surcharge) 도입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함

 - 2026년 4월 상하이발 북미 서안행 운임은 FEU당 평균 2,508달러로 전월 대비 17% 상승했으며, 동안행 운임은 평균 3,485달러로 16% 상승함
 - 같은 기간 북미 동안행 운임은 FEU당 3,584달러를 기록하며 202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3,500달러를 상회함
 - 부산발 북미 서안행 운임은 FEU당 평균 2,603달러로 전월 대비 21% 상승했으며, 동안행 운임은 평균 3,578달러로 18% 상승함
 - 한국발 북미항로 운임은 서안과 동안 모두 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함
-  선사들은 유류비 상승 대응을 위한 할증료 부과를 확대하는 가운데 북미항로 선복 수급도 빠듯한 상황을 보임

 - 스위스 국적선사 MSC社는 2026년 5월부터 아시아발 북미행 화물을 대상으로 TEU당 최대 322달러 규모의 긴급유류할증료를 부과할 계획임
 - 프랑스 국적선사 CMA CGM은 아시아발 북미행 화물에 대해 FEU당 2,000달러 규모의 성수기할증료 (PSS, Peak Season Surcharge)를 도입할 예정임
 - 선사들의 북미항로 화물적재율은 9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선사는 2026년 5월 선적 예약이 조기 마감된 것으로 나타남
 - 업계는 공급 축소와 연료비·보험료 상승 영향으로 북미항로 운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  북미 수출항로 물동량은 베트남·한국 중심으로 증가세를 나타냄

 - 2026년 3월 아시아 10개국발 북미행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한 167만 TEU를 기록함
 - 중국발 물동량은 78만 3천TEU로 전년 대비 6% 감소한 반면, 베트남발은 40% 증가한 25만 8천TEU, 한국발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23만 TEU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나타냄
 - 2026년 1~3월 누적 북미 수출항로 물동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493만 9천TEU를 기록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2) 코리아쉬핑가제트(2026.04.28.),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num=147065(2026.05.25. 검색)

2 호르무즈해협 봉쇄 영향으로 파나마 운하 원유 물동량 급증²³⁾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 영향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산 원유 수입이 확대되며 파나마 운하 석유 물동량이 급증함

- 조사기관 케플러(Kpler)에 따르면 2026년 4월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원유 및 석유제품 물동량은 하루 평균 177만 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하며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특히, 일본향 미국산 원유 선적량은 평시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하루 26만 배럴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기존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Very Large Crude Carrier) 기반 희망봉 우회 항로 대신 파나마 운하 통과가 가능한 소형·중형 유조선 활용을 확대하고 있음
- 일본 코스모에너지홀딩스(Cosmo Energy Holdings)가 구매한 미국산 원유 일부도 해당 경로를 통해 일본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남

 파나마 운하 통과 수요 집중에 따른 병목 현상과 물류비 상승 우려가 확대됨

- 파나마 운하는 하루 통과 가능 선박 수가 제한돼 있어 유조선 증가에 따른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유조선 대상 운하 슬롯 경매가는 전쟁 이전 평균 13만 5천달러~14만 달러 수준에서 2026년 3월 38만 5천달러로 상승함
- 일부 선박은 슬롯 확보를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업계는 운하 슬롯 확보 비용과 우회 운송 증가 영향으로 글로벌 석유·가스 가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3) 글로벌이코노믹(2026.05.13.), [https://www.g-enews.com/view.php?ud=2026051217200280420c8c1c064d_1\(2026.05.25. 검색\)](https://www.g-enews.com/view.php?ud=2026051217200280420c8c1c064d_1(2026.05.25. 검색))

4) 유럽



1 로테르담항(Port of Rotterdam), 디지털 전환의 일상 운영 내재화 성과 발표²⁴⁾

-  로테르담항은 2026년 디지털 보고서를 발간하고, 디지털 혁신이 시범 사업 단계를 넘어 일상 운영에 내재화됐음을 확인함

 - 내항 선박 통합 계획 시스템 ‘넥스트로직(Nextlogic)’, 항만 기항 최적화, 트럭 운전자 대상 실시간 혼잡 알림, 안벽·자산 디지털화 등이 일상 운영에 정착됨
 - 아울러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포트베이스(Portbase)’를 통해 항만 공동체 내 디지털 사전 신고, 화물·기항 정보, 배후지 조정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거·서류 기반 절차를 대체하고 있음
 - 또한, 모든 인가된 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급망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킴
-  로테르담 항만청은 선박 동향, 수심, 기상, 교통밀도 등 예측 데이터를 활용한 항로 계획 파일럿을 추진 중이며, 병목 현상을 조기에 식별하여 해양선박·항만 서비스 제공자·터미널 간 교통 흐름 관리 및 운영 조율을 지원함

 - 항만 기항 최적화를 통해 적기 도착(Just-in-Time)을 실현함으로써 대기 중 연료 소비 및 배출을 감축함
 - 또한, 내수로 선박 통합 계획으로 불필요한 운항과 항만 내 혼잡을 줄이는 등 디지털 도구가 배출량 측정이 아닌 실제 운영 의사결정을 선제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음
-  로테르담항은 디지털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개별 항만 단위가 아닌 국제 운송 회랑(corridor) 단위로 데이터 교환·계획 프로세스·표준을 인접 항만·배후지 허브·물류 파트너와 정합화하는 전략을 추진중임

24) Port Technology International(2026.05.18.), <https://www.porttechnology.org/rotterdams-next-digital-chapter/>(2026.05.26. 검색)

로테르담항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



자료: Port Technology International(2026.05.18.), <https://www.porttechnology.org/rotterdams-next-digital-chapter/>(2026.05.26.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바르셀로나항(Port of Barcelona), 2026~2030년 제5차 전략계획 발표²⁵⁾

- 바르셀로나항은 2026~2030년을 대상으로 인프라·연결성·에너지를 3대 핵심축으로 삼아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에 대응하고 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주기에 착수함
 - 기존 전략의 주요 성과로는 4만여 개의 일자리 지원, 연간 700억 유로(Euro) 규모의 대외 무역 지원, 컨테이너 선박 및 페리 대상 육상전원공급장치(OPS, Onshore Power Supply) 도입 등이 제시됨
- 신규 계획의 핵심은 항만 활동의 남부 지역 재편, 도로·철도 신규 접근로 개발, 추가 선석 확보, 에너지 전환 계획(Energy Transition Plan) 수립이며, 탈탄소화 지원을 위한 에너지 생산·배급 허브 조성도 포함됨
 - 물류 분야에서는 물류운영사 실사(CILSA)를 통한 가용 부지 확대 및 현행 물류활동 구역(ZAL, Zona de Activitats Logístiques) 역량 확장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 유치와 고도화된 고도화된 공급망 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함
 - 이번 전략계획은 25개 경제·환경·사회 목표 하에 12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며, 환경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을 제시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5) Port Technology International(2026.04.27.), <https://www.porttechnology.org/port-of-barcelona-launches-2026-2030-strategy/>(2026.05.26. 검색)

5) 오세아니아



1 호주 포트 헤들랜드, 신규 다목적 부두 럼스덴 포인트 2026년 중반 1단계 가동 진입²⁶⁾

-  세계 최대 철광석 수출항 포트 헤들랜드(Port of Port Hedland)의 신규 다목적 부두 럼스덴 포인트(Lumsden Point)가 2026년 중반 첫 가동을 앞두고 최종 인도 단계로 이행 중임
 - 2026년 4월 기준 기반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지고 토목공사가 가동 준비 수준에 근접하면서 공사가 진전된 단계에 진입함
 - 2026년 4월 그레이트 노던 하이웨이(Great Northern Highway) 럼스덴 인터체인지(Lumsden Interchange)가 완공돼 대형 화물 차량의 부두 진입 관문이 확보됨
 - 럼스덴 포인트는 리튬 등 배터리 광물 수출과 풍력터빈 부품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수입을 동시에 지원하는 다목적 시설로 조성됨
 - 향후 공사는 선석 완공, 중량물 하역 인프라 설치, 산업단지 내 물류 임차기업 통합을 중심으로 진행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6) Construction Review Online(2026.04.22.), [https://constructionreviewonline.com/lumsden-point-port-expansion-project-in-australia-underway/\(2026.05.25. 검색\)](https://constructionreviewonline.com/lumsden-point-port-expansion-project-in-australia-underway/(2026.05.25. 검색))

6) 아프리카



1 CMA CGM, 케냐 몸바사항에 8억 2천만 달러 투자로 동아프리카 거점 강화²⁷⁾

- 프랑스 국적선사 CMA CGM社가 케냐 정부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몸바사항 (Port of Mombasa)의 컨테이너 터미널 2곳을 8억 2천만 달러 규모로 현대화·확장하기로 함
- 이번 협정은 2026년 5월 11일 프랑스가 공동 주최한 나이로비 아프리카 포워드 서밋(Africa Forward Summit) 부대 행사에서 발표됨
- 투자 규모는 약 7억 유로(8억 2천만 달러)이며, CMA CGM社는 2005년부터 케냐에 진출해 사업을 운영해 오
- 몸바사항은 2025년 211만 TEU를 처리해 전년 대비 5.5% 성장했으나, 현재 처리 능력 한계에 근접한 상태임
- 이번 투자는 화물 처리 능력 확대, 역내 교역로 강화, 케냐와 동·중앙 아프리카 내륙 물류망 연결성 개선을 목표로 함
- 몸바사항은 동아프리카 최대 항만으로 우간다, 르완다,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DRC) 등 내륙국의 관문 역할을 수행함
- 케냐 정부는 민관협력(PPP) 방식의 항만 현대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협정은 그 흐름의 대형 성과로 평가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7) Seatrade Maritime(2026.05.14.), <https://www.seatrade-maritime.com/ports-logistics/cma-cgm-to-invest-820m-in-kenya-s-port-of-mombasa>(2026.05.26.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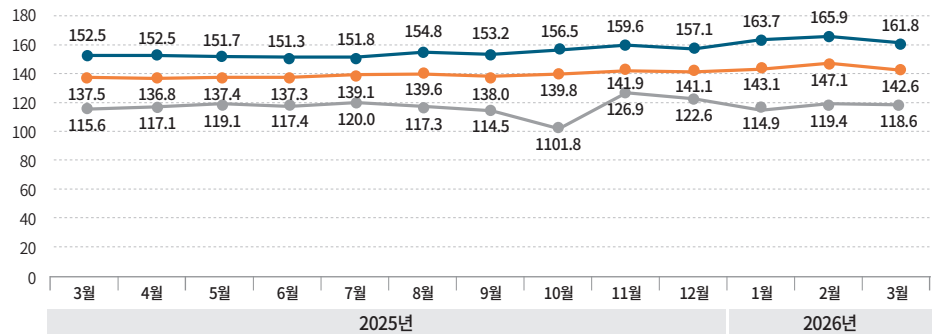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 Total
— China Index
— North Range Index

2026년 3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전체·중국·유럽 모두 증가²⁸⁾

- 2026년 3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3.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한 142.6p를 기록함
- 항만물동량 지수는 2025년 하반기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26년 2월에 147.1p를 기록한 다음 3월에는 전월 대비 감소한 142.6p를 기록함
-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도 2025년 하반기부터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26년 1월과 2월에 각각 163.7p, 165.9p를 기록한 다음 3월에는 감소한 161.8p를 기록함
- 유럽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2025년 10월 큰 낙폭 후에 반등하였으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6년 3월에는 전월 대비 0.7% 감소한 118.6p를 기록함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37.5	136.8	137.4	137.3	139.1	139.6	138.0	139.8	141.9	141.1	143.1	147.1	142.6	-3.1	3.7
China Index	152.5	152.5	151.7	151.3	151.3	154.8	153.2	156.5	159.6	157.1	163.7	165.9	161.8	-2.5	6.1
North Range Index	115.6	117.1	119.1	117.4	120.0	117.3	114.5	101.8	126.9	122.6	114.9	119.4	118.6	-0.7	2.6

주: 2015=100, Total 및 North Range Index는 계절 및 근무일 조정

자료: ISL(2026.04.30.), [https://www.isl.org/media/109\(2026.05.25. 검색\);](https://www.isl.org/media/109(2026.05.25. 검색);) [https://www.isl.org/media/110\(2026.05.25. 검색\);](https://www.isl.org/media/110(2026.05.25.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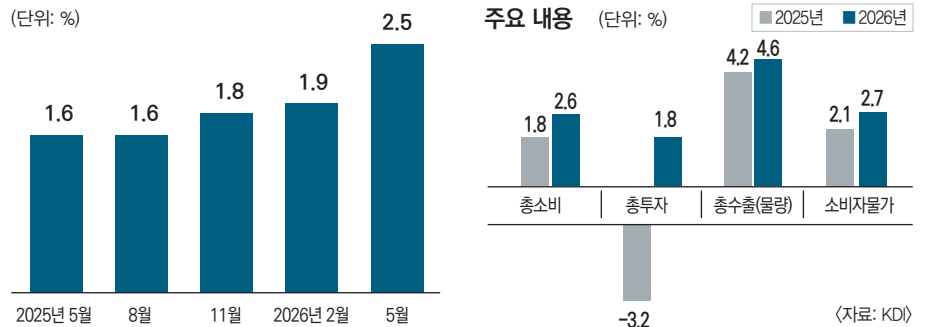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8) ISL(2026.04.30.), [https://www.isl.org/media/109\(2026.05.25. 검색\);](https://www.isl.org/media/109(2026.05.25. 검색);) [https://www.isl.org/media/110\(2026.05.25. 검색\);](https://www.isl.org/media/110(2026.05.25. 검색);)

2 KDI, 반도체 호황과 내수 회복 영향으로 경제성장을 전망 상향²⁹⁾

-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세를 반영해 2026년 한국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함
 - 반도체 호황 영향으로 2026년 총수출이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반도체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0.3%p 이상으로 분석함
 - 또한, 2026년 경상수지가 2,3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임
 - 올해 총소비 증가율은 2.6%로 전망했으며, 증시 활황과 소득 증가 등이 민간소비 확대 요인으로 작용함
 - 건설투자는 2025년 -9.8%에서 2026년 0.1%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 📍 KDI는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함
 - 2027년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으며, 올해와 내년 모두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함
 - 국제유가를 배럴당 91달러, 원·달러 환율을 1,475원으로 가정해 중동전쟁 영향을 반영함
 - 중동전쟁은 경제성장률을 약 0.5%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일부 영향이 상쇄된 것으로 분석함
 - 연간 물가상승률을 2.7%로 전망했으며, 전쟁 장기화 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자료: 국민일보(2026.05.14.),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78663688&code=11151100&cp=nv>(2026.05.25.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9) 국민일보(2026.05.14.),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78663688&code=11151100&cp=nv>(2026.05.25. 검색)

3 ICT 수출, 반도체·SSD 수요 확대 영향으로 역대 최대 증가 기록³⁰⁾

- 
국내 ICT 수출은 반도체와 SSD 수요 확대 영향으로 2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함
 - 2026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5.9% 증가한 42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265억 5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냄
 - ICT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했으며, ICT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의 49.7%를 차지함
 - 반도체 수출은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와 고정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3.3% 증가한 31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함
 -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AI 서버용 저장장치(SSD)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0.0% 증가한 4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돌파함
-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디스플레이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냄
 - 홍콩을 포함한 중국 IC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2.1% 증가한 16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미국 수출은 294.2% 증가한 79억 달러를 기록함
 - 베트남과 대만 수출은 각각 89.3%, 89.4% 증가한 57억 7천만 달러, 4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함
 - 휴대폰 수출은 고사양 제품과 고부가 부품 수요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한 1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함
 - 디스플레이 수출은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과 전방산업 수요 둔화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한 1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0) 뉴시스(2026.05.1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13_0003628514(2026.05.25. 검색)

4 국적 컨테이너선사, 해운 시황 부진 속 수익성 차별화 심화³¹⁾

- 2025년 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은 운임 하락과 해운 시황 둔화 영향으로 전체 실적이 감소했으나, 중견 선사 중심의 성장세는 지속됨
 - 국적 컨테이너선사 14개사의 2025년 합산 매출액은 21조 1,9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2조 6,106억 원으로 47% 감소함
 - 14개 선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2%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수익성을 유지함
 - 영업이익 1천억 원을 초과한 선사는 5개사를 유지했으며, 14개 선사 중 9개 선사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함
 - 업계는 HMM, 고려해운, SM상선 등 미주항로 중심 선사들의 실적 부진이 전체 수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함
- HMM과 고려해운 등 미주항로 선사들은 운임 하락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됨
 - HMM은 2025년 매출액 10조 7,212억 원, 영업이익 1조 4,232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9% 감소함
 - HMM의 컨테이너 평균 운임은 TEU당 1,214달러로 전년 대비 24% 하락했으나, 물동량은 394만 TEU로 202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고려해운은 매출액 2조 9,945억 원, 영업이익 2,563억 원을 기록했으며, 미국항로 운임 하락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38% 감소함
 - SM상선은 매출액 1조 2,070억 원, 영업이익 1,203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0% 감소함
- 장금상선·남성해운 등 아시아 역내 중심 중견 선사들은 실적 성장세를 지속함
 - 장금상선그룹 3개 선사는 합산 매출액 3조 6,689억 원, 영업이익 5,683억 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 증가함
 - 장금상선은 원가 절감과 아시아 역내 항로 안정세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14% 증가했으며, 흥아라인은 영업이익이 48% 증가함
 - 남성해운그룹은 매출액 1조 786억 원, 영업이익 1,086억 원을 기록하며 2022년 이후 다시 매출 1조 원대를 회복함
 - 천경해운, 팬오션 컨테이너 부문, 범주해운, 동진상선 등도 두 자릿수 수준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세를 기록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1) 코리아워킹가제트(2026.05.13.),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num=147149(2026.05.25. 검색)

2) 양곡



1 2026년 4월 CBOT 곡물 가격, 밀 상승 지속·대두 소폭 하락 전환

-  2026년 4월 시카고선물거래소(CBOT, Chicago Board of Trade) 기준 주요 곡물 가격은 밀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대두는 강세 흐름이 둔화되며 소폭 하락 전환되었고, 옥수수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함

 - 밀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감
 - 대두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 전환되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두 자릿수 상승세를 유지하며 강세 기조를 이어감
 - 옥수수는 전월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함
-  밀 가격은 221달러/톤으로 전월(219달러/톤) 대비 1.1%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2.4% 상승한 수준임

 - 전월 대비 상승 폭은 둔화되었으나 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가격 회복세가 지속됨
 -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 불확실성을 자극하며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대두 가격은 429달러/톤으로 전월(430달러/톤) 대비 0.3%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13.5% 상승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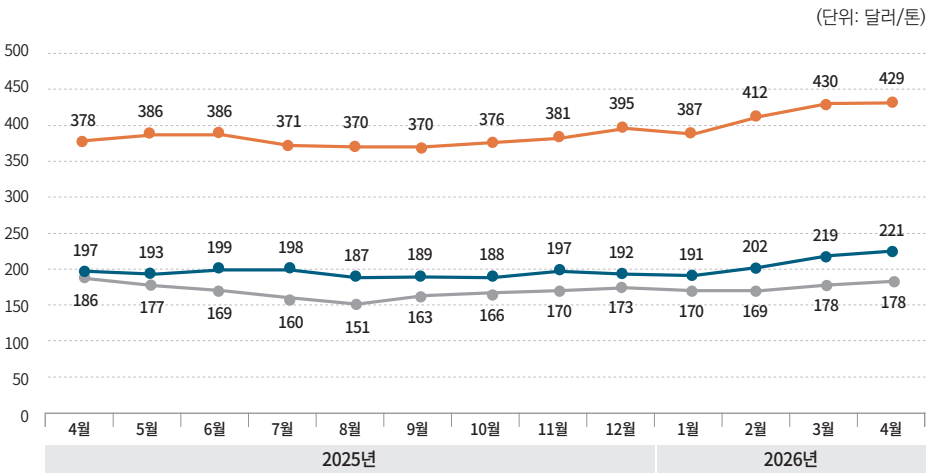
 - 3개월 연속 이어진 상승세가 멈추며 소폭 하락 전환되었으나, 주요 곡물 중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폭은 여전히 가장 큰 수준임
 - 그간의 지속적 강세 흐름에 따른 단기 조정과 수급 안정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옥수수 가격은 178달러/톤으로 전월(178달러/톤) 대비 0.1% 상승하며 보합세를 보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4.4% 하락함

 - 전월 가격을 유지하며 상승·하락 변동이 거의 없었으며, 글로벌 공급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평가됨
 -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며 타 품목 대비 가격 회복이 더딘 모습임

03 품목 및 산업 동향

세계곡물 가격 추이

● 밀
● 대두
● 옥수수



(단위: 달러/톤)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197	193	199	198	187	189	188	197	192	191	202	219	221	1.1	12.4	
대두	378	386	386	371	370	370	376	381	395	387	412	430	429	-0.3	13.5	
옥수수	186	177	169	160	151	163	166	170	173	170	169	178	178	0.1	-4.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https://www.krei.re.kr/grain/page/242>(검색일 2026.05.27.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미국 농무부, 2026/27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 1.60% 감소 전망³²⁾

미국 농무부(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2026/27년도 세계 곡물 수급 전망(WASDE-671)을 통해 생산량·공급량·교역량·재고량 감소와 소비량 증가를 전망함

- 2026/27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9억 4,553만 톤으로 전년 대비 1.60% 감소, 공급량은 37억 4,989만 톤으로 0.44% 감소할 전망이다
- 소비량은 29억 7,293만 톤으로 전년 대비 0.37% 증가, 교역량은 5억 2,369만 톤으로 3.86% 감소할 전망이다
- 기말재고량은 7억 7,696만 톤으로 전년 대비 3.41% 감소, 기말재고율은 26.1%로 1.02%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밀은 생산량을 비롯한 전 항목이 감소할 전망이다

- 생산량은 8억 1,906만 톤(-2.94%), 공급량 10억 9,827만 톤(-0.40%), 소비량 8억 2,323만 톤(-0.04%) 수준으로 전망됨
- 교역량은 2억 1,170만 톤(-5.36%), 기말재고량 2억 7,504만 톤(-1.49%), 기말재고율 33.4%(-0.49%p)로 전망됨

쌀은 생산량과 재고량은 감소하는 반면, 공급량·소비량·교역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 생산량은 5억 3,782만 톤(-0.92%), 공급량 7억 3,412만 톤(+0.03%), 소비량 5억 4,139만 톤(+0.71%)으로 전망됨
- 교역량은 6,301만 톤(+4.53%)으로 큰 폭 증가가 전망되며, 기말재고량 1억 9,274만 톤(-1.82%), 기말재고율 35.6%(-0.92%p)로 전망됨

옥수수는 소비량을 제외한 전 항목이 감소할 전망이다

- 생산량은 12억 9,538만 톤(-1.32%), 공급량 15억 9,019만 톤(-1.08%), 소비량 13억 1,479만 톤(+0.33%)으로 전망됨
- 교역량은 2억 691만 톤(-3.14%), 기말재고량 2억 7,754만 톤(-6.54%)으로 4개 주요 곡물 중 재고 감소폭이 가장 크며, 기말재고율 21.1%(-1.55%p)로 전망됨

대두는 재고량을 제외한 전 항목이 증가할 전망이다

- 생산량은 4억 4,154만 톤(+3.26%), 공급량 5억 6,633만 톤(+2.32%), 소비량 4억 4,069만 톤(+3.31%)으로 전망됨
- 교역량은 1억 8,922만 톤(+1.42%)으로 증가가 전망되며, 기말재고량 1억 2,478만 톤(-0.28%), 기말재고율 28.3%(-1.02%p)로 전망됨

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도자료(2026.04.24.), [https://www.krei.re.kr/grain/page/265?cmd=view&pst=505064\(2026.04.27. 검색\)](https://www.krei.re.kr/grain/page/265?cmd=view&pst=505064(2026.04.27. 검색))

2026/27년도 세계 곡물
수급 전망(USDA)

(단위: 억 톤/톤)

구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기말재고량	기말재고율
전체 곡물	29.5	37.5	29.7	5.2	7.8	26.1
밀	8.2	11	8.2	2.1	2.8	33.4
쌀	5.4	7.3	5.4	0.6	1.9	35.6
옥수수	13	15.9	13.1	2.1	2.8	21.1
대두	4.4	5.7	4.4	1.9	1.2	28.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 동향 및 정책, [https://www.krei.re.kr/grain/page/266?cmd=view&pst=505154&pageInd ex=1\(2026.05.27. 검색\)](https://www.krei.re.kr/grain/page/266?cmd=view&pst=505154&pageInd ex=1(2026.05.27.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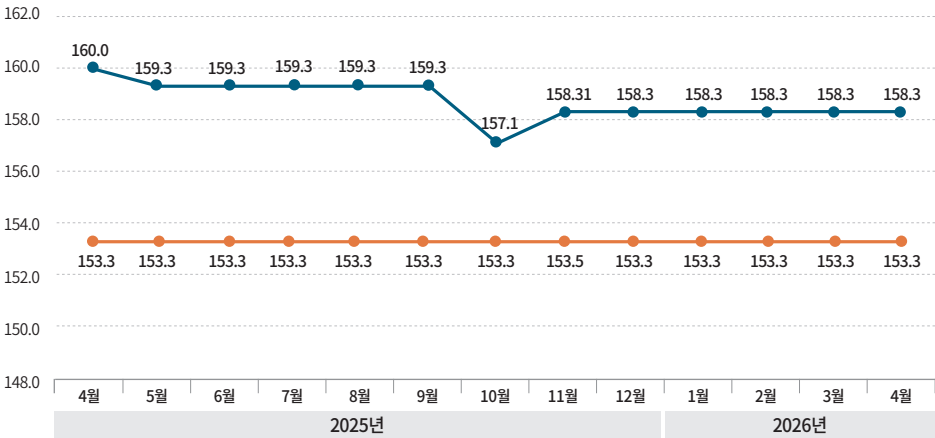
1 2026년 4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지속

- 2026년 4월 포틀랜드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는 158.3p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5개월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고, 고로슬래그 시멘트도 153.3p로 장기 안정세를 지속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2025년 10월 157.1p로 일시 하락한 이후 11월 반등을 거쳐 158.3p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5개월째 이어가고 있음
 - 전월 대비 0.0%로 변동이 없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 하락했으나 전월(-1.5%)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되며 약세 기조가 다소 완화됨
-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장기간 가격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함
 - 2025년 2월 이후 15개월 연속 153.3p 수준을 유지하며 변동성 없는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음
 - 전월 대비 및 전년 동월 대비 모두 0.0%로 가격 안정세가 지속됨

(단위: 2020년 = 100 기준)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60.0	159.3	159.3	159.3	159.3	159.3	157.1	158.3	158.3	158.3	158.3	158.3	158.3	0.0	-1.0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5	153.3	153.3	153.3	153.3	153.3	0.0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earch/search.do\(2026.05.27. 검색\)](https://kosis.kr/search/search.do(2026.05.27. 검색))

2 시멘트업계, 중동전쟁發 요소값 급등으로 원가 압박 심화³³⁾

-  수요 감소로 위축된 시멘트산업이 미국·이란 전쟁 이후 요소값 급등 여파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요소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 저감을 위한 필수재로, 산업용 요소 가격이 2026년 2월 kg당 600원 수준에서 지난 4월 1,500원 수준까지 치솟으며 두 달 만에 2배 이상 상승함
 - 시멘트 반제품(클링커) 생산에는 1,400℃ 이상의 고온이 필요해 다량의 유연탄이 투입되며,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요소수가 필수적으로 사용됨
-  국내 요소 수급 구조와 가격 급등에 대한 시멘트산업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내 요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산 비중이 70%에 달하나, 중국이 자국내 사정으로 수출을 제한하면서 시멘트업체들이 수급처를 동남아로 전환함
 - 세계 요소 공급량의 약 30%가 유통되는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동남아發 요소 가격까지 급등하며 시멘트업체의 원가 부담이 심화됨
-  대체 원료 활용 등 개별 대응이 시도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에는 한계가 있음

 - 일부 업체는 요소수 대신 암모니아를 활용해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고 있으나, 암모니아는 중국산 요소수보다 약 6% 비싸고 별도 설비가 필요해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함
 - 시멘트 분쇄조제로 사용되는 디에틸렌글리콜(DEG, Diethylene Glycol) 가격도 공급 불안으로 약 3배 급등하며 수급 우려가 확대됨
-  시멘트 수요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속에 요소값 상승 부담까지 더해지며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업계는 시멘트산업이 국내 건설경기 의존도가 큰 산업 특성상 불황의 자체 극복이 어려운 만큼 한시적인 환경규제 완화 등 현실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3) 대한경제(2026.05.11.),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5060957575180618>(2026.05.2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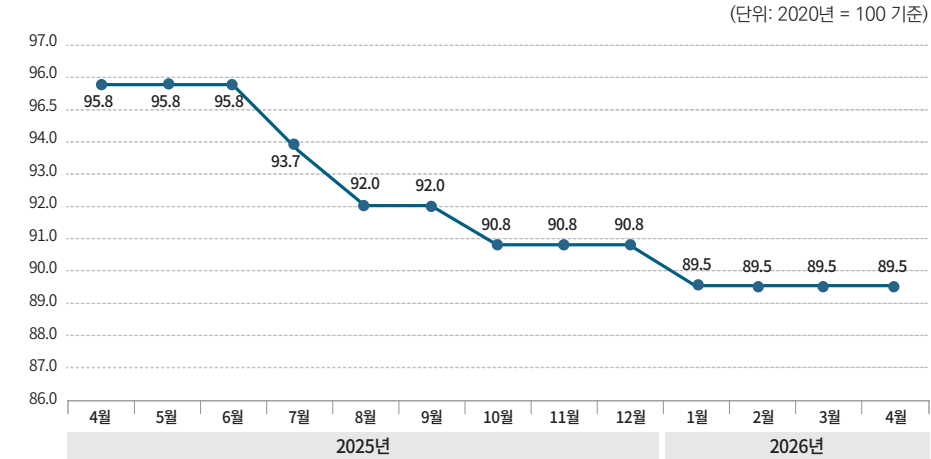
4) 모래



1 2026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한 89.5 기록

- 2026년 4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89.5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보험세를 유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함
 - 2026년 1월 이후 4개월 연속 89.5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2025년 6월(95.8) 이후 이어진 하락세는 2026년 1월부터 멈추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전환됨
 - 전년 동월 대비로는 6.6% 하락하며 약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월(-8.6%)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되며 약세 흐름이 다소 완화됨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95.8	95.8	95.8	93.7	92.0	92.0	90.8	90.8	90.8	89.5	89.5	89.5	89.5	0.0	-6.6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earch/search.do\(2026.05.27. 검색\)](https://kosis.kr/search/search.do(2026.05.27.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산림골재협의회, 사후환경영향조사 비용 부담 가중에 환경 규제 현실화 촉구³⁴⁾

-  **산림골재협의회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비용 인상과 빈번한 조사 주기로 산림 골재 업계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환경 규제의 현실화를 촉구함**
 - 산림 골재는 국가 골재 수급량의 약 43%를 차지하며 도로·담·주택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기초 자원으로 활용되나, 환경 규제 비용 증가로 업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협의회는 현실과 동떨어진 환경 규제와 이로 인해 형성된 ‘용역 카르텔’로 인해 골재 채취 업계가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함
-  **업계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 완화를 핵심 개선 사안으로 요구하고 있음**
 - 현재 토석 채취 사업장은 소음·대기·수질 등을 매 분기(연 4회) 조사해야 하며, 통상 20~30년간 운영되는 사업장 특성상 동일 수준의 조사 결과가 반복되고 있어 빈번한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임
 -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대부분 토사 기반 비산먼지로 발생 즉시 가라앉는 특성이 있어 분기별 조사의 필요성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임
-  **조사 비용 인상으로 업계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사후환경영향조사 비용은 평균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전국 230여 개 채석장의 연간 용역비 총액은 약 250억 원에 달함
 - 협의회는 조사 비용 인상이 골재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4) 한국골재산업연구원(2026.04.20.), [https://www.ark.re.kr/bbs/board.php?tbl=news&mode=VIEW&num=11&chr=&category=&findType=&findWord=&sort1=&sort2=&page=&page=1\(2026.05.27. 검색\)](https://www.ark.re.kr/bbs/board.php?tbl=news&mode=VIEW&num=11&chr=&category=&findType=&findWord=&sort1=&sort2=&page=&page=1(2026.05.27.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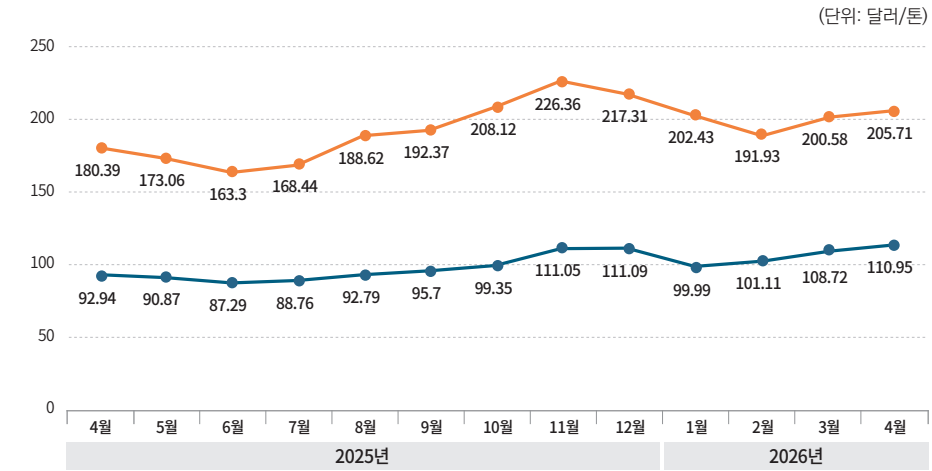


1 2026년 4월 석탄 가격, 원료탄·점결탄 동반 상승세 지속

- 2026년 4월 원료탄 가격은 전월 대비 2.1% 증가한 톤당 110.95달러, 점결탄 가격은 전월 대비 2.6% 증가한 톤당 205.71달러를 기록함
 - 원료탄은 2026년 1월 \$99.99/톤까지 하락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9.4% 증가함
 - 점결탄은 2025년 11월 \$226.36/톤 최고점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6년 3월부터 반등하여 2개월 연속 상승 중이며,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함

석탄 가격 추이

원료탄(Thermal)
점결탄(Coking)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원료탄	92.94	90.87	87.29	88.76	92.79	95.7	99.35	111.05	111.09	99.99	101.11	108.72	110.95	2.1	19.4
점결탄	180.39	173.06	163.3	168.44	188.62	192.37	208.12	226.36	217.31	202.43	191.93	200.58	205.71	2.6	14.0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 (2026.05.25. 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한·일, 중동發 LNG 공급 차질에 석탄 발전·수입 확대³⁵⁾

 중동 분쟁에 따른 LNG 공급 차질과 가격 급등으로 한국과 일본이 석탄 발전 및 수입을 확대하고 있음

- 카타르發 LNG 선적이 2월 28일 이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세계 2·3위 LNG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의 가스 발전이 4~5월 중 수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함
- 북아시아 LNG 가격은 분쟁 이후 60% 이상 급등한 반면 국제 해상 석탄 가격은 13% 상승에 그쳐, 석탄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대안으로 부상함
- 일본의 4월 석탄 발전량은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해 1년 내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으며, 가스 발전은 13% 감소함
- 한국의 4월 석탄 발전 공급량은 40% 급증해 2019년 8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냄
- 세계 최대 선주협회 BIMCO(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에 따르면 4월 한국·일본·EU向 글로벌 석탄 선적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면서 해상 석탄 무역량이 단기 반등하는 흐름임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5) OilPrice(2026.05.12.), <https://oilprice.com/Latest-Energy-News/World-News/Asias-Major-LNG-Importers-Japan-and-Korea-Turn-to-Coal.html>(2026.05.2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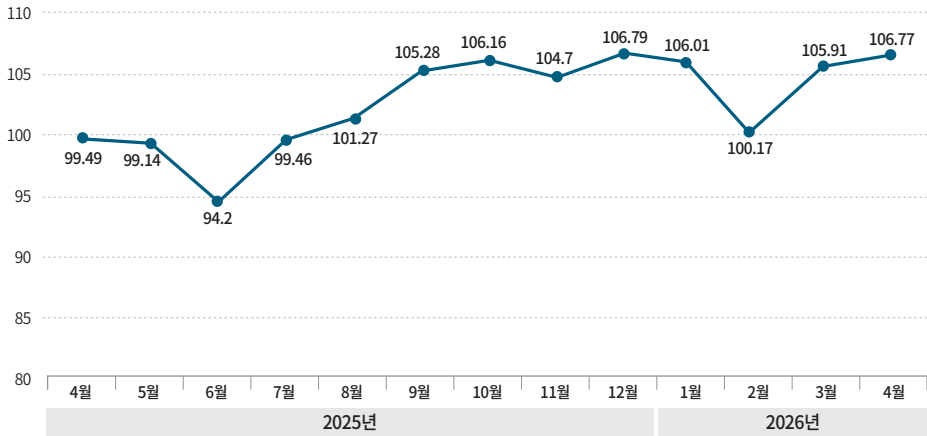
6) 철광석



철광석 가격 추이

1 2026년 4월 철광석 가격, 상승 기조 유지

- 2026년 4월 철광석 가격(호주산 62%, 중국 CNF)은 전월 대비 0.8% 소폭 상승한 톤당 106.77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함
- 2026년 2월 톤당 100.17달러까지 하락한 이후 3~4월 두 달 연속 상승하며 106달러 선을 회복하였으며, 2025년 12월 고점(106.79달러)에 근접한 수준임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99.49	99.14	94.2	99.46	101.27	105.28	106.16	104.7	106.79	106.01	100.17	105.91	106.77	0.8	7.3	

주: 62% 분광 중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 (2026.05.24. 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중국 철광석 수입, 1~4월 누적 8% 증가...선철 생산 확대에 수요 견조³⁶⁾

- 2026년 1~4월 중국 철광석 수입량은 4억 1,86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으며, 제철소 가동률 상승과 선철 생산 확대가 수요를 뒷받침함
 - 4월 수입량은 1억 390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으며, 호주·브라질의 날씨 개선으로 정상 출하가 재개되면서 공급이 안정됨
 - 4월 중국 일평균 선철 생산량은 239만 톤으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으며, 계절적 내수 회복과 탕산(Tangshan) 등 주요 산업단지의 환경규제 완화가 생산 확대를 견인함
 - 호주산 철광석(Fe 61%) 가격은 톤당 107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월말 시장 포화로 소폭 하락세를 보임
 - 항만 철광석 재고는 약 1억 6천만 톤으로 1월 중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수입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
- 한편 중국 철강 수출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각국의 반덤핑 조치 확대로 감소세를 나타냄
 - 1~4월 중국 압연강재 수출량은 3,42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으며, 4월 단월 기준으로도 950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9.2% 감소에 그침
 - 중동 분쟁에 따른 해상 물류·보험비용 상승, 베트남·인도·브라질·한국 등 주요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2026년 1월 도입된 중국 내 수출허가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세계철강협회(Worldsteel)는 2026년 글로벌 철강 수요 증가율을 0.3%로 전망하면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정체를 예고함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6) GMK Center(2026.05.11.), <https://gmk.center/en/news/china-s-rolled-steel-exports-fell-by-9-7-y-y-while-iron-ore-imports-rose-by-8-y-y-in-january-april/> (2026.05.2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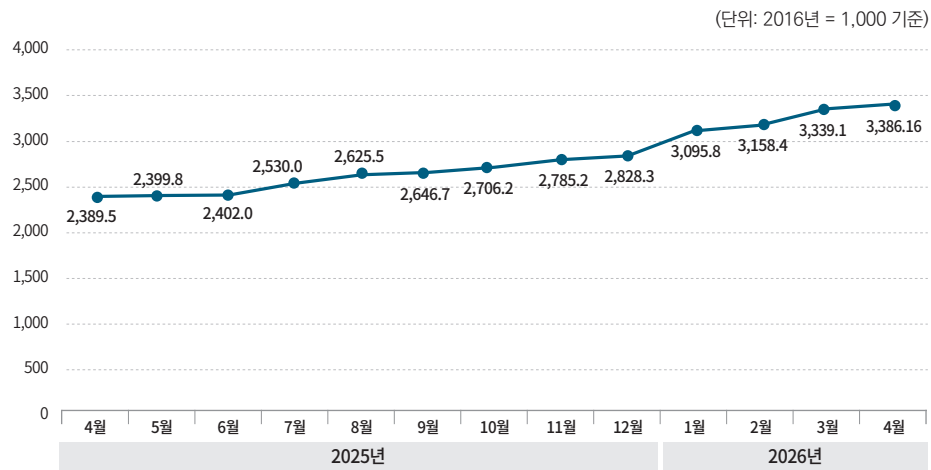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2026년 4월 광물종합지수, 전월 대비 1.4% 올라 12개월 연속 상승 흐름 유지

- 2026년 4월 광물종합지수는 3,386.16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41.7% 상승함
 - 2025년 4월 2,389.5로 연중 저점을 찍은 뒤 꾸준한 오름세가 이어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 지수	2,389.5	2,399.8	2,402.0	2,530.0	2,625.5	2,646.7	2,706.2	2,785.2	2,828.3	3,095.8	3,158.4	3,339.088	3,386.16	1.4	41.7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6.05.24.검색\)](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6.05.24.검색))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2 프랑스 Eramet社, 인도네시아 니켈 채굴승인량 축소로 5월 생산 중단 예고³⁷⁾

- 프랑스 자원기업 Eramet社는 인도네시아 합작사 PT Weda Bay Nickel의 2026년 니켈광 채굴승인량(RKAB)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5월 중 광산 생산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합작사 PT Weda Bay Nickel의 2026년 RKAB 한도는 1,200만 wmt(습량톤)로, 전년 초기 승인량 3,200만 wmt 대비 62.5% 감소함
 - 이 가운데 외부 판매용 니켈광 900만 wmt는 4월 중순에 모두 소진됐으며, 잔여 물량은 인접한 합작사 자체 처리시설에 우선 배정됨
 - Eramet社는 5월 중순까지 전체 승인량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며, Weda Bay 광산은 이후 유지보수 단계로 전환될 예정임
 - PT Weda Bay Nickel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에 RKAB 상향 조정을 공식 요청한 상태임
 -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공급 관리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니켈 공급 구도에 변화가 예상되며, 한국 이차전지 업계의 원료 조달 비용 상승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박세리 전문연구원

051-797-4690, seri.park@kmi.re.kr

37) Mining.com(2026.04.23.), <https://www.mining.com/web/eramet-plans-indonesia-mine-halt-in-may-as-it-awaits-permit-revision/>(2026.05.24. 검색)

8) 목재



1 2026년 1~4월 국내 목재 주요 품목 수입, 전년 동기 대비 전반적 감소세 지속

- 2026년 1~4월 국내 목재 수입은 주요 품목 전반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원목(47만 9천, -5.3%)과 합판(42만 4천, -2.1%)은 전월 누적 대비 감소 폭이 다소 완화된 반면, 제재목(36만, -23.6%)과 성형목재(1만 7,695톤, -25.0%)는 20%대의 큰 감소 폭을 이어감
 - 파티클보드는 36만 2천^{m³}로 전년 동기(47만 4천^{m³}) 대비 23.6% 감소하며, 1-3월 누적 감소율(-2.5%) 대비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어 4월 단월 수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목재펠릿은 105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136만 5천 톤) 대비 22.5% 감소하였으며, 섬유판은 5만 4천^{m³}로 21.7% 줄어드는 등 에너지용·가공용 목재 품목 전반의 수입 위축이 지속되고 있음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6년 누적 (1-4월)	2025년 누적 (1-4월)	증감률 (%)
원목(천 ^{m³})	479	506	-5.3
제재목(천 ^{m³})	360	471	-23.6
성형목재(톤)	17,695	23,584	-25.0
합판(천 ^{m³})	424	433	-2.1
파티클보드(천 ^{m³})	362	474	-23.6
섬유판(천 ^{m³})	54	69	-21.7
목재펠릿(천 톤)	1,058	1,365	-22.5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6.05.21.),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220443&bbsld=BB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6.05.26. 검색\)](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220443&bbsld=BB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6.05.26.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유럽집행위원회,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간소화 검토 보고서 발표³⁸⁾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간소화 검토 보고서(COM(2026) 191 final)를 발표함
 - 이번 규정은 목재·소·커피 등 7개 품목을 EU에 수출·판매하는 기업이 해당 제품이 산림 전용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규정 적용 시점은 대기업·중견기업 기준 2026년 12월 30일, 소기업·영세기업은 2027년 6월 30일로 확정됨
 - 2023년 시행 당시 기업당 연간 최대 81억 유로(Euro)에 달했던 준수 비용이 이번 간소화 조치로 약 75% 수준인 20억 유로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이번 간소화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소기업·영세기업의 서류 제출 의무 완화, 저위험 국가 수입 기업에 대한 심사 절차 간소화, 규정 대상 품목 조정 등임
 -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규정이 연간 20만 8천 헥타르(ha)의 산림 파괴를 막고 4,9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약 70억 유로의 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8) 유럽집행위원회(2026.05.04.),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report-european-parliament-and-council-simplification-review-eudr_en(2026.05.26.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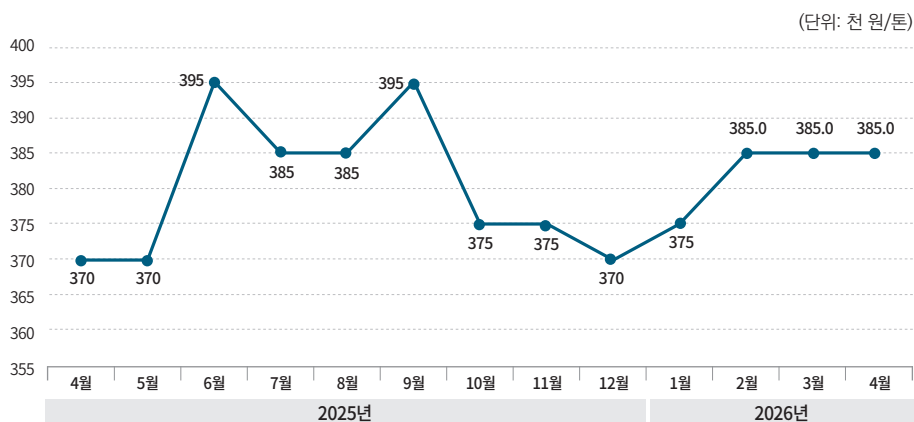
9) 고철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2026년 4월 국내 고철(생철) 가격, 3개월 연속 38만 5천 원/톤 보합세 유지³⁹⁾

- 2026년 4월 국내 고철(생철) 가격은 38만 5천 원/톤으로 전월(38만 5천 원/톤) 대비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며, 2026년 2월 이후 3개월 연속 동일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전년 동월(2025년 4월, 37만 원/톤) 대비로는 1만 5천/톤 상승(+4.1%)하여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
- 2025년 12월 연중 최저치(37만 원/톤)를 기록한 이후 2026년 1월 37만 5천 원/톤으로 반등하고, 2월부터 38만 5천 원/톤 수준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적인 추가 상승 모멘텀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6.4.23.), [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5.26. 검색\)](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5.26.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9)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6.04.23.), [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5.26. 검색\)](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6.05.26. 검색))

2 2026년 4월 국내 철스크랩 수입, 1988년 이후 월간 최저치 기록⁴⁰⁾

-  2026년 4월 국내 철스크랩 수입량(HS 7204)은 9만 644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7% 감소했으며, 2025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전년 실적을 하회하고 1988년 통계 조화 이래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 2024년 5월 이후 24개월 연속 월간 수입량이 20만 톤을 초과하지 못하는 가운데, 2026년 3월부터 가동률이 서서히 회복되며 5월 들어 수급 압박이 가시화됨
 - 수입산 철스크랩 가격이 국내 시장 가격 대비 최대 100원/kg 이상 높게 형성되어 제강업체가 수입 확대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임
 - 그 결과 국내 시장에서 물량 확보 경쟁이 과열되어 4월 말 대비 5월(20일 기준) 주요 제강사의 실질 구매가격이 50~70원/kg 상승함
-  국내 철스크랩 가격이 권역별로 빠르게 상승하며 수급 압박이 심화됨
 - 경인·충청권에서는 중량A⁴¹⁾ 기준단가가 480~490원/kg이지만 실질 구매가격이 5월 넷째 주 기준 520원/kg 수준까지 상승하여 4월 말(440~450원/kg) 대비 한 달 새 최대 80원/kg 급등함
 - 일본 관동지구 동급 철스크랩의 영남권 제강사 도착 기준 환산 단가는 약 615원/kg으로 국내 시황가격(상단 기준)보다 약 95원/kg 높아 추가 국내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4월 철스크랩 수출은 4만 7,581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6% 감소하며 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으나, 물량 기준으로는 12개월 내 최대 수준으로 이 역시 국내 수급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0) 스크랩워치(2026.05.21.), <https://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34>(2026.05.26. 검색)

41) 중량A(중A):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형강 등 비교적 크고 무거운 스크랩. 품질이 좋아 가격이 가장 높음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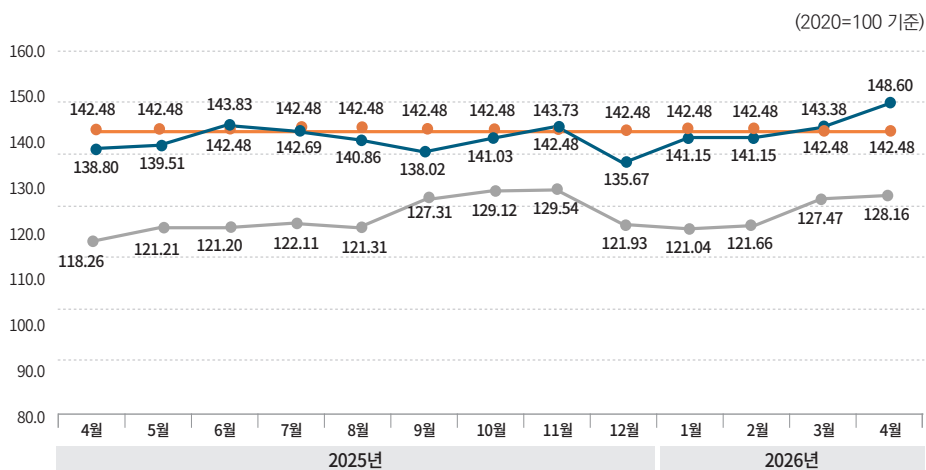
1

2026년 4월 국내 철강 반제품 물가지수, 슬래브·빌렛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재전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6년 4월 국내 주요 철강 반제품(선철·슬래브·빌렛) 생산자물가지수는 슬래브·빌렛 모두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며 2026년 3월의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기조에서 벗어나 플러스로 재전환됨
- 선철은 2026년 4월에도 142.48을 유지하며 전월·전년 동월 대비 모두 변동이 없었으며, 장기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음
- 슬래브는 2026년 4월 148.60으로 전월(143.38) 대비 3.6%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138.80) 대비로는 7.1% 올라 3월의 전년 동월 대비 -4.0%에서 크게 반등하였고 관측 기간 내 최고치를 기록함
- 빌렛은 2026년 4월 128.16으로 전월(127.47) 대비 0.5% 소폭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118.26) 대비로는 8.4% 상승하여 3월의 -0.7%에서 플러스로 전환됨
- 슬래브·빌렛의 전년 동월 대비 지수가 3월 마이너스에서 4월 플러스로 재전환된 것은 반제품 시장의 회복 흐름이 재개되고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슬래브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 폭(+7.1%)이 세 품목 중 가장 크며, 관측 기간 최고치를 기록한 점은 글로벌 철강 수급 여건 변화와 국내 수요 회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됨

선철, 슬래브 및 빌렛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선철
— 슬래브
— 빌렛



03 품목 및 산업 동향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선철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0.0	0.0
슬래브	138.80	139.51	143.83	142.69	140.86	138.02	141.03	143.73	135.67	141.15	141.15	143.38	148.60	3.6	7.1
빌렛	118.26	121.21	121.20	122.11	121.31	127.31	129.12	129.54	121.93	121.04	121.66	127.47	128.16	0.5	8.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5.26.검색\)](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5.26.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세계철강협회, 2026년 4월 글로벌 조강 생산량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 발표⁴²⁾

- 세계철강협회(worldsteel, World Steel Association)에 따르면 2026년 4월 전 세계 69개국 조강 생산량은 1억 5,340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하였으며, 3월 (-4.2%)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되는 흐름을 나타냄
- 지역별로는 북미(+6.9%), 아프리카(+11.5%), 기타 유럽(+4.2%), 남미(+3.1%)가 증가함
 - 반면, 중동(-27.6%),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우크라이나(-13.4%), 아시아·오세아니아(-1.3%), EU 27개국(-1.8%)은 감소함
 - 주요 생산국별로는 중국이 8,360만 톤(-2.8%)으로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인도(1,380만 톤, +3.9%), 미국(720만 톤, +9.4%), 한국(520만 톤, +4.8%), 튀르키예(330만 톤, +9.4%), 독일(320만 톤, +9.5%)은 증가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2) worldsteel(2026.05.21.), <https://worldsteel.org/media/press-releases/2026/april-2026-crude-steel-production/>(2026.05.26. 검색)

11) 자동차



① 2026년 3월 자동차산업, 전년 동월 대비 내수·수출·생산 증가⁴³⁾

- 3월 내수는 전월 대비 33.7%,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한 164,810대를 기록함
 -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며 내수가 증가함
 -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40.4% 증가한 97,904대가 판매되었으며, 전체 내수 판매의 59.4%를 차지함
 -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 효과와 함께 국산·수입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면서 친환경차 내수 증가세를 견인함
- 3월 수출은 전월 대비 37.7%,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한 259,439대를 기록함
 - 중동사태와 일부 공급망 차질 등 대외 악재에도 미국·유럽향 전동화 모델 수출 확대 영향으로 수출이 증가함
 - 친환경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2.1% 증가하여 전체 자동차 수출의 37.7%인 97,711대를 기록함
- 3월 생산은 전월 대비 38.9%,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한 386,363대를 기록함
 - 내수와 수출의 동반 증가에 따른 주요 완성차 업체의 조업 확대 영향으로 생산이 증가함

단위 : 대, 백만 \$, %

2026년 3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5년			2026년			증감률		
	연간	3월	3월 누적	2월	3월	3월 누적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3월 누적 대비
내수	1,680,110	149,517	388,299	123,275	164,810	408,902	33.7	10.2	5.3
(국산차)	1,355,296	122,800	323,335	94,861	128,755	321,675	35.7	4.8	-0.5
(수입차)	324,814	26,717	64,964	28,414	36,055	87,227	26.9	35	34.3
OEM 수입	17,925	1,532	4,553	1,242	2,103	5,185	69.3	37.3	13.9
수출	2,736,109	240,898	673,729	188,450	259,439	697,218	37.7	7.7	3.5
(완성차 수출액)	71,976	6,232	17,284	4,806	6,370	17,242	32.5	2.2	-0.2
(부품 수출액)	21,200	1,841	5,279	1,449	1,796	4,877	24	-2.4	-7.6
생산	4,102,200	370,629	1,013,278	278,250	386,363	1,025,117	38.9	4.2	1.2

주: 수입차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승용자동차등록계+국내제조사의 해외공장산 수입판매(OEM수입)+Tesla 합산, 수출액은 관세청 수출입통계(MTI 741, MTI 742)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6.05.12.),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81&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6.05.25.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81&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6.05.25.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3)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6.05.12.),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81&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6.05.25.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81&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6.05.25. 검색))

2 호르무즈해협 봉쇄 영향으로 중고차 수출 차질 확대⁴⁴⁾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중동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국내 중고차 대중동 수출이 급감하며 업계 피해가 확대됨

- 2026년 3월 대중동 중고승용차 수출 금액은 6,563만 9,377달러, 수출 물량은 6,636대로 전년 월평균 대비 각각 48.8%, 71.8% 감소함
- 카타르, 바레인, 이스라엘 등 일부 중동 국가에는 2026년 3월 중 차량 수출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남
- 중고차 수출업계는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중동행 물류비가 전쟁 이전 대비 약 5.5배 상승했다고 설명함
- 업계는 이미 선적한 화물에도 컨테이너당 약 7,250달러의 추가 비용이 부과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밝힘

 중고차 수출업계는 선적 지연과 자금 경색 심화에 따른 경영 부담 확대를 호소함

- 국내 연간 중고차 수출 규모는 약 12조 8,600억 원, 약 88만 대 수준이며, 이 중 약 70%가 인천항을 통해 중동으로 수출되고 있음
- 업계는 인천송도중고차수출단지에 약 1,600개 업체와 약 2만 대 규모의 수출 대기 차량이 적체된 것으로 추산함
-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선적 지연으로 차량 매입 자금과 수출 대금 회수가 동시에 지연되며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함
- 업계는 단기 운전자금 대출 지원과 함께 아프리카·중남미·독립국가연합(CIS)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외교·무역 지원 필요성을 제기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4) 중앙일보(2026.05.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7011\(2026.05.25. 검색\)](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7011(2026.05.25. 검색))

3 중국 전기차 약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전기차 경쟁 심화⁴⁵⁾

전기차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 전기차업체의 글로벌 시장 확대 영향으로 국내 완성차업체의 가격 경쟁력 부담이 확대됨

- 리튬 가격은 2026년 5월 기준 kg당 23.52달러로 전년 11월 대비 112.9% 상승했으며, 니켈·코발트·알루미늄 등 주요 배터리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냄
- 국내 전기차업체는 주요 배터리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자국 내 공급망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중국 생산 테슬라 모델Y와 모델3는 각각 4,999만 원, 4,199만 원 수준으로 국내 보급형 전기차와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
-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Y는 2026년 4월 누적 국내 판매 2만5,411대를 기록하며 수입차 모델 판매 1위를 기록함

중국 전기차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유럽·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BYD는 씨라이언7 등 전기차 판매 확대 영향으로 2026년 4월 누적 국내 판매 5,991대를 기록하며 수입차 브랜드 판매 4위에 올라섬
- 유럽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BYD는 2026년 1분기 유럽 시장에서 7만3,847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155.5% 증가했으며, 시장점유율은 2.4%를 기록함
- 같은 기간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각각 3.4%, 4.0%로 소폭 하락함
- 일본 시장에서도 BYD는 2026년 4월 누적 판매 1,435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2.7% 증가했으며, 현대차는 같은 기간 341대를 판매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5) 디지털타임스(2026.05.12.), [https://www.dt.co.kr/article/12062020?ref=naver\(2026.05.25. 검색\)](https://www.dt.co.kr/article/12062020?ref=naver(2026.05.25. 검색))

4 전기차 보조금 평가기준 완화로 수입차 업계 수혜 가능성 확대⁴⁶⁾

- 정부가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완화하면서 수입 전기차 브랜드의 보조금 수혜 가능성이 확대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성평가 비중을 기존 60%에서 약 5% 수준으로 축소하고 가점 항목을 삭제하는 등 평가체계를 정량 중심으로 개편함
 - 통과 기준은 기존 120점 체계 80점 이상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완화됨
 - 개편된 기준은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지속성, 안전관리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구성됨
 - 해당 기준은 2026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산정부터 적용될 예정임
- 업계는 공급망 기여도와 생산거점 구조에 따라 수입차 브랜드별 수혜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함
 - BMW코리아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연구개발(R&D) 센터 운영 영향으로 연구개발 인프라 항목에서 유리할 것으로 평가됨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국내 연구개발센터 운영과 장기간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 이력을 기반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볼보코리아는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차량 판매 구조로 인해 탄소배출 및 공급망 기여도 항목에서 부담이 제기됨
 -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국내 고용 규모와 생산시설 부족 영향으로 공급망 기여도 항목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6) 뉴시스(2026.05.1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15_0003630953(2026.05.2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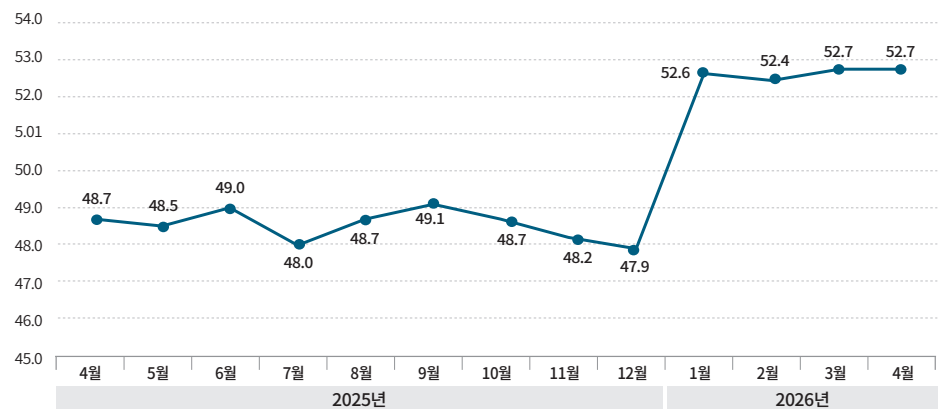
12) 잡화



1 2026년 4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52.7 기록, 확장 국면 4개월 연속 유지⁴⁷⁾

- 2026년 4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과 동일한 52.7을 기록하며 기준선(50)을 상회하는 확장 국면을 4개월 연속 유지함
 - 2026년 1월 52.6으로 급반등한 이후 4개월 연속 52p대 수준에서 안정적인 확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2025년 하반기 위축 구간(50 이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확장 기조가 공고화되는 모습임
-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이며 확장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전월(52.7)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52.7을 유지함
 - 전년 동월(48.7) 대비 4.0p 상승하며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개선 흐름이 확인됨
-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 PMI가 50 이상을 유지하며 생산 및 수요 회복 기대가 지속되고 있음
 -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중동 분쟁 등 대외 리스크가 제조업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상존함
 - 향후 신규주문 및 생산지표의 지속적 개선 여부가 확장세 유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47) Trading Economics(2026.04.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6.04.27.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PMI	49.0	48.7	48.5	49.0	48.0	48.7	49.1	48.7	48.2	47.9	52.6	52.4	52.7	0.0	8.2

자료: Trading Economics(2026.05.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2026.05.27.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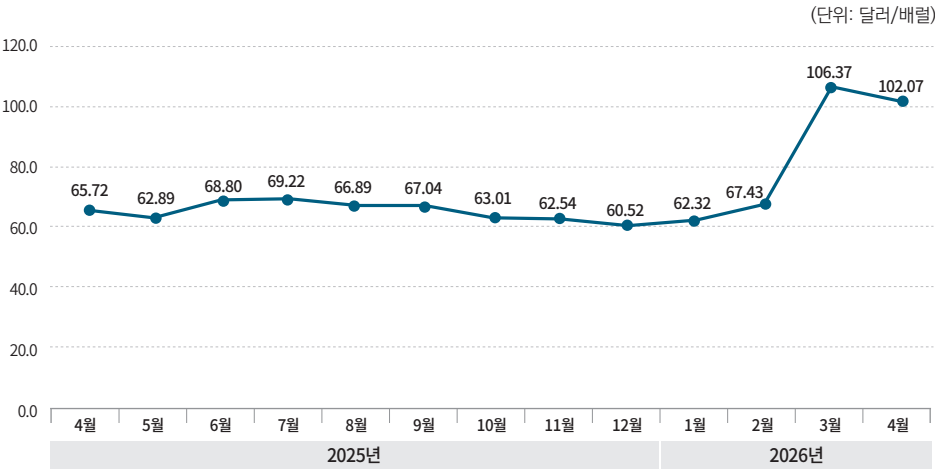
13) 유류



1 2026년 4월 국제유가, 전월 대비 4.0% 하락

- 4월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전월 대비 4.8% 하락, 전년 동월 대비 55.3% 상승한 102.07달러를 기록함
- 2025년 12월 최저 수준을 기록한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월 28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3월에 이어 4월에도 높은 수준을 기록함
 - 3월 큰 폭으로 상승했던 두바이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3대 유종의 유가 차이 폭이 감소함
 - 다만, 중동의 긴장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으며 호르무즈해협의 봉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부 선박의 제한적인 통항만 이루어지고 있어 고유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67.74	63.73	69.26	70.87	69.39	70.01	65.00	64.47	62.05	61.97	68.40	128.52	105.70	-17.8	56.0	
Brent	66.46	64.01	69.80	69.55	67.26	67.58	63.95	63.66	61.63	64.73	69.37	99.60	102.46	2.9	54.2	
WTI	62.96	60.94	67.33	67.24	64.02	63.53	60.07	59.48	57.87	60.26	64.52	91.00	98.06	7.8	55.7	
평균	65.72	62.89	68.80	69.22	66.89	67.04	63.01	62.54	60.52	62.32	67.43	106.37	102.07	-4.0	55.3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6.05.25. 검색\)](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6.05.25. 검색))

2 2026년 4월 석유제품 생산자물가, 제트유 중심으로 크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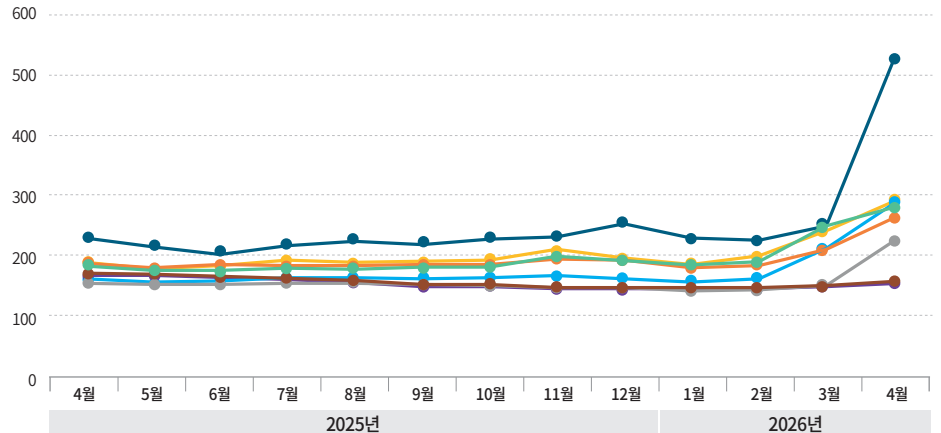
4월 석유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제트유가 전월 대비 110.6%, 전년 동월 대비 128.2% 상승한 525.83을 기록함

- 원유를 정제를 통해 산출되는 석유제품은 원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제트유(128.2%), 중유(79.0%), 등유(54.5%), 경유(53.4%), 벙커C유(46.0%), 휘발유(41.2%) 순서임
- 다만, 석유가스(LPG)에 해당하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8.3%, 8.4% 하락함

(단위: 2020 = 100 기준)

주요 석유제품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휘발유
- 제트유
- 등유
- 경유
- 중유
- 벙커C유
- 프로판가스
- 부탄가스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188.11	180.67	185.65	185.22	183.54	187.01	185.28	194.82	192.80	181.19	183.55	211.68	265.58	25.5	41.2	
제트유	230.41	215.74	203.04	216.72	224.04	219.69	228.03	231.42	253.78	229.72	226.17	249.67	525.83	110.6	128.2	
등유	182.57	174.26	175.81	179.58	177.38	180.17	180.35	199.53	192.10	183.47	190.22	249.25	282.00	13.1	54.5	
경유	190.70	179.39	183.89	193.77	189.98	191.88	192.88	212.31	196.89	186.87	200.77	242.49	292.58	20.7	53.4	
중유	161.56	157.55	159.33	165.12	164.06	163.28	163.56	168.14	163.07	157.79	162.96	213.30	289.27	35.6	79.0	
벙커C유	155.25	152.93	153.43	155.68	154.79	152.57	150.69	147.88	147.85	142.81	143.44	150.93	226.71	50.2	46.0	
프로판가스	169.66	169.66	165.88	162.10	157.19	150.49	150.49	146.20	146.20	146.20	146.20	149.49	155.59	4.1	-8.3	
부탄가스	172.43	172.39	168.50	165.07	160.80	153.49	153.49	148.38	148.38	148.38	148.38	151.67	157.95	4.1	-8.4	

주: 주요 석유제품인 나프타는 화학공업생산업의 주요 지표로 정리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5.25. 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로 글로벌 석유 공급망 및 유가 불안 확대⁴⁸⁾⁴⁹⁾⁵⁰⁾⁵¹⁾

호르무즈해협 봉쇄 장기화와 중동전쟁 영향으로 글로벌 석유 공급망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확대됨

- 에너지 기업 사우디아람코(Saudi Aramco)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누적 10억 배럴의 석유 공급 손실이 발생했으며, 봉쇄 지속 시 매주 1억 배럴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함
- 사우디아람코는 휘발유와 항공유 등 정제유 재고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석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낮아졌다고 평가함
-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세계 원유 재고는 2026년 3~4월 동안 약 2억 5천만 배럴 감소했으며,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됨
- 미국 투자은행 JP모건(JP Morgan)은 주요국 상업용 석유 재고가 2026년 6월 초 운영상 스트레스 수준까지 하락하고, 9월에는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함

미국과 국제에너지기구는 공급 부족 완화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 방출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 에너지부는 트라피구라(Trafigura), 마라톤 페트롤리엄(Marathon Petroleum), 엑손모빌(ExxonMobil) 등 에너지 기업에 총 5,330만 배럴 규모의 전략비축유를 추가 공급할 계획임
- 미국은 국제에너지기구 공조에 따라 하루 평균 122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시장에 추가 공급하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은 약 1억 6,400만 배럴 규모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했으며, 2026년 7월 말까지 약 2억 1천만 배럴을 추가 공급할 계획임
- 시장에서는 미국과 주요국의 전략비축유 방출에도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 시 공급망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48) 뉴시스(2026.05.1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12_0003625928(2026.05.25. 검색)

49) 헤럴드경제(2026.05.1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36052?ref=naver>(2026.05.25. 검색)

50) 뉴시스(2026.05.1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15_0003631704(2026.05.25. 검색)

51) 투데이에너지(2026.05.15.),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97880>(2026.05.25. 검색)

- 
시장에서는 글로벌 재고 감소와 공급 차질 장기화 시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을 우려함
 - 국제에너지기구와 주요 기관들은 현재 유가 안정이 미국·중국의 비축유 방출과 수요 감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함
 - 국제에너지기구는 호르무즈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기뢰 제거, 물류 병목 해소, 유조선 재배치 등으로 정상화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인도, 태국, 대만 등이 나프타와 경유 등 정제유 부족 위험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함
 - 시장에서는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재고 감소가 지속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14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 유럽 제트연료 시장, 중동발 공급 차질로 구조적 공급 부족 우려 확대⁵²⁾

-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중동·아시아 정유시설 공급 차질 영향으로 유럽 제트연료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가 확대됨
 -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리스타드에너지(Rystad Energy)는 유럽 제트연료 시장이 구조적 공급 공백에 직면했다고 평가함
 -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아시아 정유소 가동 축소 영향으로 글로벌 제트연료 공급량은 하루 약 10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됨
 - 이는 2026년 글로벌 제트연료 예상 수요 약 800만 배럴의 10% 수준에 해당함
 - 유럽은 제트연료 소비량의 3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5%를 중동에서 공급받고 있어 공급 차질 영향이 확대됨
-  유럽 제트연료 가격과 재고 불안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항공업계의 비용 부담과 운항 차질 우려가 제기됨
 - 유럽 제트연료 가격은 전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으며, 암스테르담-로테르담-앤티워프(ARA) 허브 재고는 최근 6년 내 최저 수준인 57만 9천 톤까지 감소함
 - 리스타드에너지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유럽 제트연료 재고가 2026년 6월 최소 재고 수준인 '23일 방어선'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루프트한자(Lufthansa)는 약 2만 편의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은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을 제기함
 - 리스타드에너지는 올해 글로벌 제트연료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하루 40만 배럴에서 20만 배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2) 에너지데일리(2026.05.15.),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312>(2026.05.25.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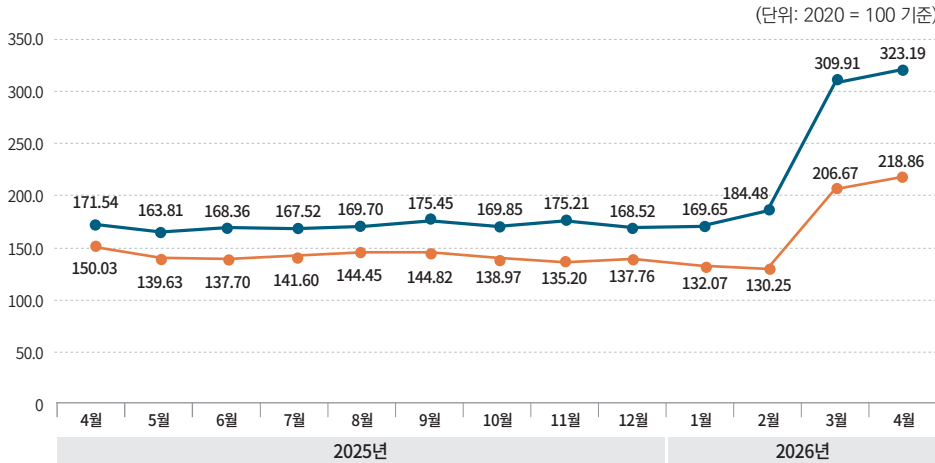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① 2026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 및 에틸렌 상승세 지속

4월 나프타와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4.3%, 5.9% 증가한 323.19p, 218.86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석유제품인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함께 상승하고 있으며, 4월에도 전월 대비 상승함
- 나프타 크래킹 등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원료인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구조적 공급 과잉 등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원료가격 부담 확대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함
- 석유화학산업은 나프타와 에틸렌 등을 원료로 각종 플라스틱·합성수지·화학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어 국제유가와 원료가격 변동이 생산비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율(%)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71.54	163.81	168.36	167.52	169.70	175.45	169.85	175.21	168.52	169.65	184.48	309.91	323.19	4.3	88.4
에틸렌	150.03	139.63	137.70	141.60	144.45	144.82	138.97	135.20	137.76	132.07	128.74	206.67	218.86	5.9	45.9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5.25.검색\)](https://ecos.bok.or.kr/#/SearchStat(2026.05.25.검색))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관세청, 석유화학 원료 수급 지원 강화 추진⁵³⁾

-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원료 수급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석유화학 원료 수급 지원과 현장점검을 추진함
 - 관세청은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내 에너지·화학기업 SK지오센트릭 공장을 방문해 나프타와 톨루엔 등 석유화학 핵심 원료 수급 상황과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함
 - SK지오센트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우회 항로 이용으로 추가 운임 부담과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관리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함
 - 관세청은 우회항로 이용에 따른 운임의 과세가격 제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정관세 사후 신청,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제도 활용을 안내함
 - 또한, 입항 전 수입통관, 긴급 수요물품 대상 24시간 통관 지원 등 주요 통관 지원 정책의 현장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3) 물류신문(2026.05.12.),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055>(2026.05.25. 검색)

3 석유화학업계, 1분기 흑자 전환에도 업황 불확실성 지속⁵⁴⁾⁵⁵⁾

-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들은 중동전쟁에 따른 래깅 효과와 중국 수출 감소 영향으로 2026년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함
 - 롯데케미칼은 2026년 1분기 매출 4조9,905억 원, 영업이익 735억 원을 기록하며 2023년 3분기 이후 10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함
 -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은 영업이익 1,648억 원,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영업이익 341억 원을 기록했으며, SK이노베이션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제기됨
 - 업계는 중동전쟁 이전 저가에 확보한 나프타 원료 기반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래깅 효과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함
 - 중국이 자국 내 석유화학 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을 통제하면서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됨

주요 석유화학업체
2026년 1분기 실적

(단위: 원)			* SK이노베이션은 증권가 전망치
회사	매출	영업이익	
롯데케미칼	4조 9,905억	735억	
LG화학 석유화학부문	4조 4,723억	1,648억	
SK이노베이션 화학부문	2조 5,660억	500억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	1조 3,401억	341억	
에쓰오일 석유화학부문	1조 1,044억	255억	

자료: 각 업체, iM증권

자료: 세계일보(2026.05.13.),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512515378?OutUrl=naver\(2026.05.25. 검색\)](https://www.segye.com/newsView/20260512515378?OutUrl=naver(2026.05.25. 검색))

- 정부는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과 산업단지 효율화 등을 통해 석유화학산업 지원을 추진 중임
 - 정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나프타분해설비(NCC, Naphtha Cracking Center) 보유 기업 대상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지원함
 - 정부는 대산, 여수1·2호, 울산 등 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설비 효율화와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 중임
 - 대산과 여수1호 산업단지는 개편 절차에 착수했으나, 여수2호와 울산 산업단지는 참여 기업 간 합의가 지연되고 있음

54) 세계일보(2026.05.13.),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512515378?OutUrl=naver\(2026.05.25. 검색\)](https://www.segye.com/newsView/20260512515378?OutUrl=naver(2026.05.25. 검색))

55) 동행미디어 시대(2026.05.14.), [https://www.sidae.com/article/2026051314244532748\(2026.05.25. 검색\)](https://www.sidae.com/article/2026051314244532748(2026.05.25. 검색))

 업계는 역래킹 가능성과 신규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중장기 수급 불확실성을 우려함

- 업계는 종전 이후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하락할 경우 고가에 매입한 원료 부담이 마진을 잠식하는 역래킹(원료가 하락 국면에서 고가 재고로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또한 중국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출 재개 시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됨
- 에쓰오일(S-OIL)의 샤흐 프로젝트는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약 9조 2,580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를 구축 중이며, 2026년 6월 말 기계적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업계는 신규 대규모 설비 가동 시 기존 석유화학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 및 수익성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신정훈 부연구위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연구책임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부연구위원

박세리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감리

김찬호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6년 5월 29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